

굿모닝인천

JUNE 2021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30

06

INCHEON MONTHLY MAGAZINE

굿모닝인천

2021. 06 | JUNE



무의도기행

함세덕(咸世德 ; 1915-1950)



젊은 어부 아, 뭇들 하구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개루 나오시지
들 았구? 어젯밤 물에 동아떼가 여덟미서 덕적으로 몰려가는 걸,
용유 준필 할아버지가 추수곡 싣구 지나가다 봤대요. 어떻게 떼가
큰지, 바다가 시꺼멓드라구 해요.
노틀할아범 곧 갈테니, 돛이나 올려놓게.
젊은 어부 동아떼가 이렇게 큰 것 보긴, 10년 만이라구 해요. 갔
다 와서 쉬흔 독을 저릴라믄, 어지간히 손등이 또 터질 겐요.

젊은 어부, 다시 개로 나간다. 공주학, 헌 고무장화를 한 켤레 들
고, 길에서 나온다. 사금 파는 광부들이 신는 볼기짜까지 닿는 신
이다. 뒤따라 그의 처.



글 김영승

위 인용문 바로 전 2막 「# 사면초가」에는 아래와 같은 대사가 놓여진다.
천명 죽어두 항구에 가서 죽지, 떼무리서 사공은 되지 말라구 했어요.
주학의 처 사공하구 무슨 대천지 원수가 졌다든? 지금 세상에 그래두 어수룩한 건 뭐니뭐니 해두, 백정
하구 괴기잡이 박엔 없어. 잡아먹는 덴 밑질 게 없거든?
천명 큰 성두 작은 성두 벌에서 죽었어요. 큰 성은 조기사리 나갔다가, 덕적서 황서방이 베 등거리만 찾
어왔구, 작은 성은 새우사리 나갔다가 댜마다리 밑에 대가릴 쳐박구 늘어진 걸, 누나하구 어머니가 끌어
내왔었어요.
손턴 와일더(Thornton Wilder ; 1897-1975)의 희곡 『우리 마을(Our Town)』(1938)에 등장하는 그 전
지적 시점의 스테이지 매니저처럼 작가인 함세덕 역시 그러한 인물로 무대에 직접 등장하는데 마치 무성
영화의 번사처럼 아래와 같은 해설로, 17세에 용유초등학교를 일등으로 졸업한, 그리하여 경성 가서 작
가가 되는 게 꿈이었던 주인공 천명의 좌절, 그 비극의 끝을 알린다.
함세덕 그 후 그 배는 동아를 만재하고 돌아오다, 10월 하순의 모진 파도를 만나 파선하였습니다. 해주
수상경찰서의 호출장을 받고, 공주학과 낙경이 달려가 천명의 시체를 찾아왔습니다. 부서진 널쭉에다 허
리띠로 몸을 묶고 해주 항내까지 흘러갔든 모양입니다.
작가는 「# 프롤로그」에서 “때는 노구교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한창인 1930년대 말”이라고 쓰고 있었다.

06

JUNE
2021
Vol. 330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1년 6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인쇄인 신봉훈(소통협력관)
편집인 백상현(소통기획담당관)
편집장 김진국
편집위원 정경숙·김윤경
사진 김성환·임학현·최준근
디자인·제작 웨스트코(주)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지원이벤트로가기 | 6월의 시민 목소리 박문초등학교 학생들 교감 선생님과 독서 강독 동아리 학생들

CONTENTS

인천 미소 지면으로 전해지는 정성과 노력 外	04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계양산 장미원	05
스케치에 비친 인천 ⑥ 교동도	06
인천 공감 시대와 세대를 잇는 힘, 개항로	12
호국보훈의 달 현충탑	16
환경특별시 인천 업사이클	20
자원순환 Q&A ⑥ 인천에코랜드	24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⑬ 인천박문초등학교	26
인천 공무원이 간다 상수도사업본부 송진우	30
기획 맑고 깨끗한 인천 수돗물	32
정책 만화 노인 일자리	34
문화 캘린더 전래동화 뮤지컬 ‘효자호랑이’ 外	36
문화 줄인 사진기자 박근원의 사진첩	38
이미지 뉴스 어린이 안전	42
시정 뉴스 인천시 독립 40년을 축하해 주세요 外	44
의회 뉴스 자치입법 참여센터 개설 外	48
컬러링 인천 무의도	50
인포 박스 인천시 독립 40년 축하 공모전 개최 外	52
인천 문화재 이야기 ⑥ 부평도호부관아	55
소소한 인천사 호구포 外	56
仁生 사진관 우연히 찾아온 행복	57
인천의 아침 조미전쟁 150주년, 수자기 펄럭이다	58
포토 에세이 광성보	59

인천미소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www.facebook.com/incheon.gov



blog.incheon.kr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twitter.com/incheon_gov



story.kakao.com/ch/incheoncity



'인천시 미디어'



www.instagram.com/incheon_gov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지면으로 전해지는 정성과 노력

곧 아흔을 바라보는 인천 시민입니다. 매월 <굿모닝인천>에 게재되는 다채로운 내용을 접하며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오래된 인천의 이야기와 오늘날 인천의 새로운 정보, 지역별 다양한 먹거리는 물론이고,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숨겨진 소식 등 지면 하나하나에서 정성과 노력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알차고 유익한 <굿모닝인천>을 기대합니다.

정용태 남동구 석정로

상반된 매력, 공존의 도시 함께 만들기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인천이 자랑스럽습니다.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최근 큰 관심을 받았던 I-MOD 버스 등 송도와 청라, 영종 지역에 대한 정보도 자주 소개되면 좋겠습니다. 원도심 깊숙이 자리한 포근하고 정겨운 이야기에 신도심의 트렌디한 정보가 더해진다면, 인천의 다채로운 매력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경희 미추홀구 수봉로

인천은 지금 On-Air

인천에서 나고 자라 고향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요즘, 새로운 인천의 매력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의 변화는 곧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인천시가 시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 그로 인해 변화하고 진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굿모닝인천>을 통해 생생하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서구 용두산로

시민과 함께 한, 시민과 함께 할 <굿모닝인천>

얼마 전 지인을 통해 <굿모닝인천>을 처음 접했습니다. 1994년부터 발행된 전통 있는 매거진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월에 따라 유행에 따라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오래도록 시민 곁에서 함께한 <굿모닝인천>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인천을 위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염수진 부평구 원적로



계양산 장미원



희망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글 김정애(작전서운동)

완연한 봄입니다. 지난봄과 다르지 않은 풍경이 안타깝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분명 예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바깥 활동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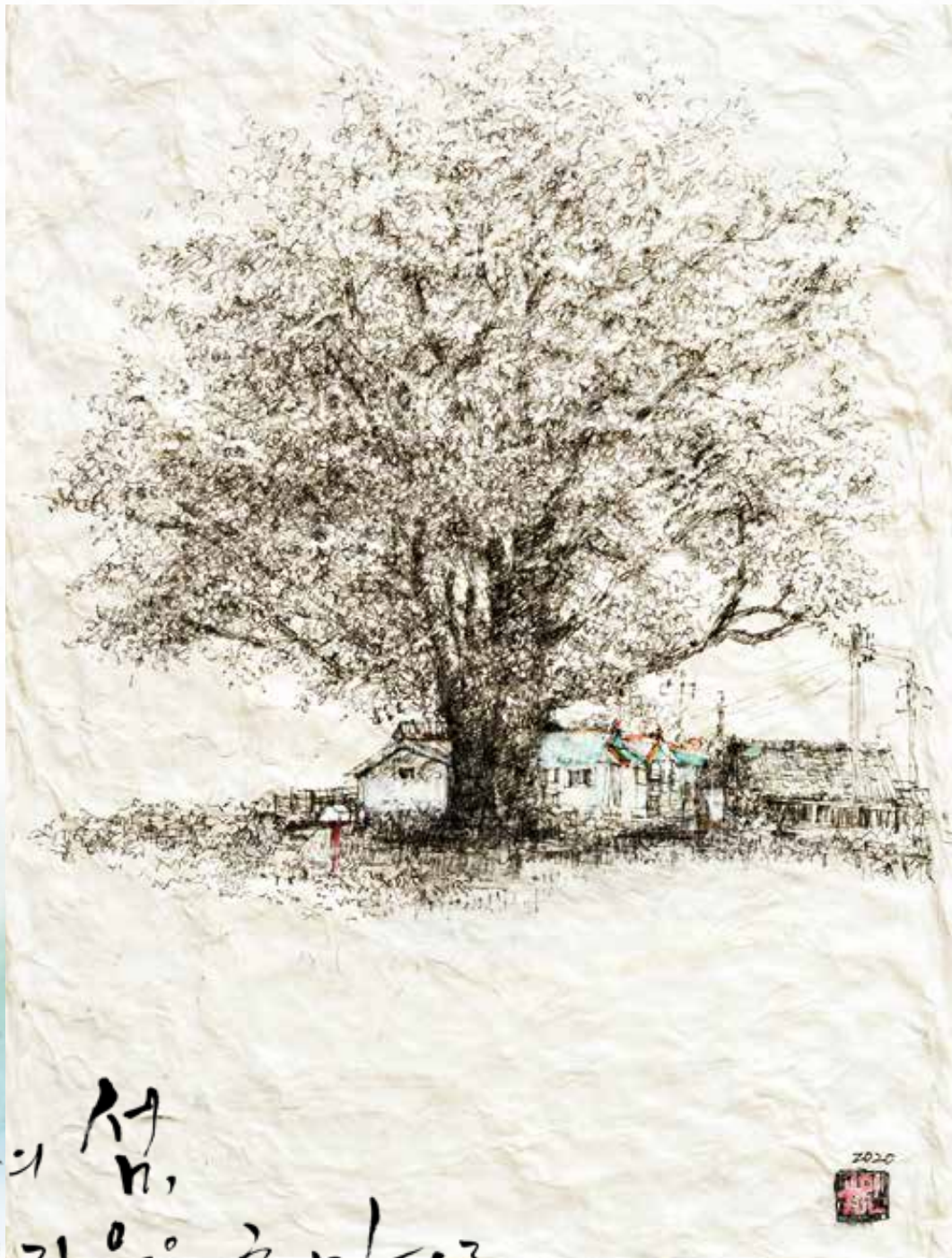
하지만 유독 짧은 듯 느껴지는 봄을 그냥 넘기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럴 때마다 호젓한 분위기의 ‘계양산 장미원’을 찾습니다. 도심과 맞닿아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미원은 계양 구민들의 쾌적한 쉼터입니다. 특히 봄 풍경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계단식으로 꼬불꼬불 이어진 오솔길은 자연의 싱그러움으로 가득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다르게 펼쳐지는 풍경이 매력적입니다. 장미원이라는 이름답게 다양한 종류의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만개한 꽃송이가 지천으로 널린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아기자기하게 조성된 공원 곳곳에는 커다란 곤충 조형물들도 자리하고 있어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시민들의 정겨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지금의 시련이 금세 지나갈 것만 같은 생각에 기분 이 봄처럼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장미원에는 고려 시대 문인 이규보 선생의 시비詩碑가 세워져 있습니다. 비석에는 경기도 여주 출생인 선생이 1219년 계양도호부 부사로 부임했을 당시 빗속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를 보며 쓴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며 빗속에서도 묵묵히 씨를 뿌리던 농부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도 내일의 희망을 고대하며 묵묵히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교동 은행나무 33×23.5(cm) 한지 위에 펜 2020
교동 무학리에 있는 천 살 먹은 할머니 나무.
바다 건너 마주 보는 이북 땅에는 할머니 나무가 있다고,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평화의 섬,
그리움은 희망으로

‘인천, 그림이 되다.’ 낡은가 하면 새롭고, 평범한가 싶으면서도 특별한. 골목길만 지나도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도시, 인천. 추억이 그리움으로, 때론 일상으로 흐르는 공간이 작가의 화폭에 담겼다. 그 따뜻하고 섬세한 붓 터치를 따라, 인천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 간다. 이번 호는 고제민 화백이 그린, 평화의 섬 교동도다.



취재 영상 보기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임학현 포토디렉터

남과 북,
천년 나무

— 나무는 천년의 시간을 살았다. 교동 무학리 542번지, 마을 어귀에 뿌리내린 아름드리 은행나무. 해마다 가을이면 노란빛 열매가 휘청휘청 매달린다. 북에서 남으로 꽃가루가 바람에 실려와 결실을 이룬다고, 동네 사람들은 믿는다.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다. 단 2.5km의 바다를 사이에 둔 아픈 역사의 간극. 교동도와 황해도 연백은 가까운 이웃이었다.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그날 이후, 한반도가 두 동강 나면서 닿을 수 없는 사이가 됐다. 잠시 머물다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흘러 강산이 일곱 번 변했다.

마을에 사는 황순숙(74) 할머니는 한 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 잠시 다녀오마, 하고 바다 건너 윗동네에 갔던 아버지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살아생전 아버지를 뵈 줄 알았는데, 이제 글렀어. 내 나이 벌써 일흔넷,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아흔네 살이니...” 죽기 전에 한 번쯤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 그러기에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이젠 너무 늙어버렸다. 그 마음이 평생 아픔을 삭이며 홀로 버텨온 아내만 할까. 아흔둘의 나이 든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나 혼자야. 한 민족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어.”

천년의 시간을 나무는 묵묵히 견뎌왔다. 쏘아지는 포탄 속에서도 곳곳이 가지를 뺏고 단단히 뿌리내렸다. “세상 다 변해도, 유일하게 변치 않는 게 이 나무야. 나 떠나도 그대로겠지.” 올해도 북에서 부는 봄바람에 꽃가루가 실려 와 고목에 새 생명을 틔웠으리라.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노란빛 찬란한 결실이 남쪽 하늘을 덮을 것이다.



무학리 천년 은행나무 아래,
마을 주민 황순숙 할머니.
지금도 한 살 때 북으로 간 아버지가 그림다.(위)

망향대에서 바라보는 바다.
철책 너머 황해도 연백까지 거리는 단 2.5km다.(아래)



교동이발관 23.5×19.5(cm) 한지 위에 펜 2020
대룡시장은 철책 너머 70여 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7년 전 섬에 다리가 놓이면서, 세월 따라 높아가던 이곳에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멈춘 시계,
그래도 흐르는 시간



— 땅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북에서 온 피란민들은 당장 먹고살기 위해 차가운 길바닥에서 이것저것 팔았다. 대룡시장의 시작이다. 시장 골목엔 약국 아닌 약방이 있다. 나의학(89), 방은녀(88) 부부는 40여 년 긴 시간 사이좋게 ‘동산약방’을 꾸려왔다.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물으로 보내 딸은 뉴욕시립대 병원 의사로, 아들은 의대 교수로 키워냈지만 정작 당신들은 섬을 떠나 산 적이 없다. 그러다 몇 해 전 할머니가 수술을 받고 몸을 돌보기 위해 자식이 있는 서울로 갔다. 그 혼자 남았다. “큰 병원에 가야 산다고 했어. 할머니는 그래서 없어. 나도 곧 가겠지. 사람 사는 게 그래. 이게 인생의 순리야.”

1967년 약업사 자격증을 딴 할아버지는 섬사람들에게 의사만큼이나 믿음직한 존재였다. 도시에서는 흔한 의원 하나 없지만, 그가 건네주는 약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을 얻고 안도했다. “헛바늘 돋은 데 먹는 약 있어요?” “지금은 떨어져서 없어. 한 닷새는 있어야 해.” “아휴, 뭐 참아야지. 밥 잘 먹고 건강해야 주사(코로나19 백신)도 맞는데.” 며칠 전엔 난정리 이장 부인이 와서 영양제를 사 갔다. 몇천 원이 부족해 외상하고 곧 오겠노라며 가게문을 나섰다. 하긴 그래야 이웃 간에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본다. 섬의 유일한 약방은 오늘 동네 사랑방이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

마을에 하나밖에 없던 ‘교동이발관’엔 얼마 전 바리깡 소리가 멈췄다. 지광식(81) 할아버지는 열다섯 나이에 살길을 찾아 이발소로 왔다. 청소하고 물 기르고

실향민에게 제비는 분단선 너머
고향 소식을 전하는 귀한 손님이다.



아내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홀로
동산약방을 지키는 나의학 할아버지.
그리고 4년 전,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오른쪽)



©사진 무장현

손님들 머리를 감기며 한 달 내내 일해봐야 담뱃값도 안 되는 돈이 손에 쥐어졌다. 3년이 지나서야 이발사가 가워 잡는 법을 가르쳐줬다. 그후로 20년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했다.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쌀 200가마니를 주고 가게 주인이 됐다. 당시 교동도엔 이발소가 예닐곱 군데 있었지만 이 집이 제일 잘나갔다. 시간이 흐르고 인적이 드물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강호동과 은지원이 머리를 자른 곳으로 방송을 타면서 다시 사람들로 붐볐다. 멀리 서울에서까지 찾아오는 단골도 생겼다.

죽는 날까지 가위질할 줄 알았는데 신장병이 왔다. 이틀에 한 번 노쇠한 몸으로 혈액 투석을 견뎌야 한다. “아이들은 내 병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지 알아. 나 하나 때문에 두 가족이 육지와 섬을 왔다 갔다 하네. 자식들에게 미안해.” 도시에 사는 두 딸은 일주일에 5일은 고향집으로 와 아버지 곁을 지킨다. 10년 전,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암과 싸울 때도 꼬박 2년을 섬과 육지를 배로 오가며 지극 정성으로 돌본 효녀들이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덜 울려고요.” 언니 오빠와 나이 차이가 나는 막내 지용미(49) 씨를 아버지는 특히 예뻐하셨다. 어릴 적 손님이 없는 이발소에서 머리를 감기고 정성껏 말려주던 아버지의 손길이 지금도 느껴진다. 지난해까지도 다 큰 딸의 앞머리를 잘라주셨다. 아버지 몸에 밴 향긋한 면도거품 냄새, 쉬이 지워지지 않을 삶의 기억이 텅 빈 이발소 안에 머문다.

머무른 시간이 깊어질수록
고향 그리는 마음은 짙어져만 간다.
알고 있다. 이젠,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지만 남쪽 땅 그들 곁에도 가족이 있다.



‘교동이발관’집 사람들. 증손자 방리하, 큰딸 지용려, 아버지 지광식, 작은딸 지용미(시계 방향으로). 딸들은 아픈 아버지 곁을 지키려고, 문 닫은 이발소 한쪽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



교동 고양이 25×15(cm) 한지 위에 펜 2020

망향대 언덕 아래 집.

아흔네 살의 할머니와 하얀 고양이, 어린 강아지가 함께 산다.

방 한 칸에 세 들어 살던 할머니는, 혼자 힘으로 악착같이 벌어들인 쌀 일곱 가마니를 주고 이 집을 샀다.

망향대 언덕 아래,
할머니 집

— 지석리 북쪽 바닷가 언덕엔 망향대가 있다. 남북을 사이에 둔, 단 2.5km의 바다. 교동도의 마지막 이발사 지광식은 열세 살 때 목선을 타고 그 바다를 건너 교동도로 왔다. 그는 고향이 사무치게 그리운 날이면 이 언덕에 오른다.

가깝고도 먼 북녘땅이 망원경 안으로 들어온다. 날 좋으면 사람들의 움직임까지 다 보이는데 오늘은 황사가 심해 시야가 흐릿하다. “저기가 내 살던 동네야. 몇 해 전,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건물을 새로 세웠어. 뭐랄까, 가슴이 서늘했어.”

젊은 시절 잠시 외항선을 탄 것 말고는 섬을 벗어나 산 적이 없다. 바다 건너 바로 눈앞에 살던 동네가 보였다.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지, 고향에서 가장 가까운 이 땅을 떠날 수 없었다. 이제 함께 피란 온 친구들은 모두 저세상으로 가고 그 혼자 남았다. 기대는 체념이 되어갔다. “괜찮아. 나 죽고 통일이 되면, 우리 아들딸이 나 대신 찾아가 주겠지.” 황해도 연백군 호동면 남당리 장수동. 자식들 가슴에도 선명히 새긴, 결코 지우지 못할 아버지의 고향집 주소다.

남과 북, 단 2.5km의 바다를 사이에 둔 아픈 역사의 간극



망향대에서 내려오는 길, 지붕을 버티고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집 한 채가 보인다. 아흔네 살의 할머니와 하얀 고양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강아지가 그 집 지붕 아래 산다. 모처럼의 인기척에 묶여 있는 강아지가 좋아라 제자리에서 짹짹둥 뒹돈다.

“뭘 보려고 왔대?” “한 화가가 할머니 집을 예쁘게 그려서요. 누가 사나 궁금했어요.” “집은 우스운데 그림은 참 곱네.” 양미분(94) 할머니는 전라북도 정읍이 고향이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아들을 잃고 그 땅에선 도저히 숨쉴 수 없어 도망치듯 떠났다. 고무 공장이 있는 서울 문래동으로 갔다. 뼈끝 녹아들듯 일해도 혼자 먹고살기도 버거웠다. 중매쟁이가 남자를 소개해 줬다. 북에서 와 대룡시장 방앗간에서 일하는 기술자였다. 그렇게 서른여섯의 나이에 교동도로 왔다.

고단한 삶은 계속됐다. 재혼한 남편은 10년을 함께 살다, 다섯 살 난 아들을 남기고 먼저 저세상으로 갔다. 헛간이나 다름없는 꼬트머리 방에 세 들어 살다 혼자 힘으로 이 집을 마련했다. “주인이 집을 허문다고 하길래 나 달라고 했지. 집 같지도 않은 걸, 쌀 일곱 가마니나 주고 샀어.” 그래도 이 집이 있어서 아들 키우며 끈질기게 삶을 지탱해 왔다.

“나 고생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래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 고생한 보람이 다 아들한테 갔다고 생각하면...”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후회 없이 살아왔다. 없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기억은 있다. 병나서 자식 고생시키지 않고 편히 누워 있는 게, 그의 마지막 소원이다.

유배의 섬 강화도에서 또 유배된 섬, 교동도. 전쟁으로 가난으로 생의 막다른 길에서 숨을 곳을 찾아 흘러들어온 사람들을, 따듯이 품어 주었다. 햇살이 스러지면 섬은 철책을 두른 채 저 멀리 물러나 다시 혼자가 된다. 하지만 그리움은 희망으로, 섬은 외롭지 않다.

다시 육지로 간다. 다리를 건널수록 점점 작아지는 섬.

그 안엔 고향 땅과 가족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림 고제민

고제민은 스스로를 ‘인천 작가’라고 말한다. 그에게 인천은 언제나 따듯하게 품어주는 어머니의 품이자, 창작 욕구를 쏟아부리게 만드는 또 다른 자아이며, 힘겨운 삶을 버텨낸 사람들의 한숨으로 이루어진 검푸른 풍경이다. 현재 인천문화재단 이사로 <인천, 그리다>, <엄마가 된 바다>, <인천 담다> 등을 출판했다.



그림 속 고양이가 앉아 있던 집.
지금은 허물어져가는 창고다.(위)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이름도 없는 고양이와
양미분 할머니(아래)



삶, 시간, 공간



그리고 사람이다



개항로, 바꾸다

이창길 1978년생

‘개항로 프로젝트’의 대장, 공간 기획자. 어릴 적 이 동네는 그의 놀이터였다. 대학생 시절 처음 사귀 여친과 설레는 마음으로 애관극장에서 데이트했다. 영화 티켓을 끊자마자 빨리 뛰라고 했다. 서울에 사는 그녀가 왜 서둘러야 하느냐 물었다. 그날 극장에 좌석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부끄러웠다. 훗날 더 큰물에서 놀면서 인천을 잊고 살았다. 영국 유학 시절부터 오래된 건축물에 관심을 두고 서울, 제주, 부산을 돌며 공간을 기획하고 새 숨을 불어넣었다. 우리 동네 인천이 떠올랐다. 고맙게도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신포동, 개항장은 그래도 변화의 바람이 일었는데, 개항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였다. 옛집과 문 닫은 병원을 카페로 식당으로, 추억을 짓고 기억을 다시 세웠다. ‘개항로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인천은 깊다. 개항 138년, 오래된 골목골목에 지나온 시간만큼의 역사가 배어 있다. 그 역사는 인천 사람들이 살아낸 시간이기도 하다. 배다리에서 인천항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개항로. 1960~1970년대 가장 번성하고 화려했으나 빛바랜 추억 속에 머물던 동네. ‘개항로 프로젝트’가 옛 시간의 흔적을 그러모아 이 시대의 감각으로 되살리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은 ‘사람’. 청년과 노장의 완벽한 팀워크가 힘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임학현 포토디렉터

개항로, 빛다

박지훈 1976년생

인천의 명동. 1980~1990년대 신포동은 인천에서 가장 ‘잘나가는’ 동네였다. 밤낮으로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다. 생에 가장 빛나던 시절, 이 동네를 드나들던 한 청춘이 불혹을 넘기고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디스코텍 ‘뽕고뽕고’가 있던 자리에 ‘메이드인 인천’ 수제 맥주를 빚어내는 양조장을 세웠다. 박지훈 ‘인천 맥주’ 대표의 이야기다. 젊은 시절 그는, 경인철도를 타고 달려간 1호선 끝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뮤지션이라는 타이틀을 품나게 걸고, 돈 되는 음악을 하기도 했다. 인‘촌’놈은 어느새 ‘서울 사람’이 됐다. 하지만 다시 돌아왔다. 그의 어린 시절 꿈이 자라고 추억이 깃든 신포동으로. 원도심 한복판에 독심 있게 세운 양조 시설. 그 안에 인천의 이름을 건 수제 맥주가 무르익어 간다. 최근엔 ‘개항로 프로젝트’로 의기투합해 맥주 ‘개항로 라거’를 선보였다. 진하고 깨끗한 맛으로 대박이 났다.

개항로, 새기다

전중원 1937년생

53년, 한자리에서 나무를 만지며 삶의 나이트를 채워왔다. 1963년 전라북도 익산에서 인천으로 왔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공장 굴뚝 연기를 따라 인천으로 모여들던 시절이었다. 대성목재 합판 공장에 들어갔다, 몇 년 후 가구 공장에서 조각하는 일을 배웠다. 사수가 “나무는 어디서나 쓸모가 있다”라며 잘 배워두라고 일렸다. 밤낮으로 먼지를 뒤집어쓰며 나무를 자르고 깎고 붙이며 기술을 익혔다. 1968년 황골고개에 목공예소를 차렸다. 철공, 목공 기술자들의 전성시대였다. 한창뎌 2층짜리 가게에 사람을 대어섯이나 두고 일했다. 하지만 기계로 간판을 찍어내는 시대가 오면서 그의 손길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어느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그의 글씨가 최고라고 했다. 그날 이후 그가 새긴 목 간판이 개항로 곳곳에 걸렸다.

개항로

개항로, 알리다

최명선 1952년생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영 취미가 없고 만화만 눈에 들어왔다. 중학생 때 무작정 서울 아현동으로 올라갔다. 만화를 그리는 출판사가 몰려 있던 동네였다. 열심히 매달리다 문득 노트 한 칸 찌리 세상이 좁게 느껴졌다. 서울 대한극장으로 가 간판 일을 배웠다. 붓엔 손도 못 대고 허드렛일을 하다, 선배들이 퇴근하면 몰래 간판에 그림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인천으로 와서도 몇 년을 선배 어깨너머로 배운 끝에야 간판 그림쟁이가 됐다. 애관, 미림, 동방, 인현... 인천 ‘시네마 천국’에 그가 그린 간판이 걸렸다. 20년 전 은퇴 후에 개항로로 와 작업실을 열었다. 송월동 동화마을 벽화도 그렸다. 젊고 잘생긴 사람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다 늙어서 팔자에 없을 맥주 모델이 됐다. 이 일대를 벗어나도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 젊은이들이 멋지다며, ‘인증 샷’을 함께 찍자고 하면 쑥스러우면서도 으쓱하다.

개항로 사람들의 시간

역사는 사람들이 살아낸 시간이다. 내 손으로 세상 단 하나뿐인 양복을 만든다는 기쁨으로, ‘드르륵드르륵’ 평생을 숨 가쁘게 달음박질한 재단사. 행여 스크린이 까맣게 변하기라도 할까, 한시도 영사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필름을 돌리던 영사 기사. 두 사람의 찬란한 하루를 위해 그날만큼 누구보다 분주히 움직이던 예식장 사람들….

개항장에서 배다리로 넘어가는 개항로. 1960~1970년대 극장, 예식장, 양복점, 병원 등이 몰려 있고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인천의 중심. 이젠 빛바랜 추억으로 남았지만, 인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거리에 얼마만큼의 미련과 그리움을 품고 있다.

역사는 삶이다. 오늘을 열어나가는 것도 사람이다. 이 거리에 변화의 바람이 인 건 2017년 ‘개항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부터다. 오래전에 문 닫은 병원, 사람이 떠난 빈집이 카페로 음식점으로 새 숨을 텃다. 오래될수록 더 새롭고 아름답게, 시대의 감각을 입고 다시 태어났다. 그 친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은 특히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인적이 드물던 골목에 발걸음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옛것을 어디까지 남기고 살릴 것인가. 또 무엇을 버리고 채울 것인가. ‘개항로 프로젝트’ 이창길(43) 대표에게 그 기준은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 세대를 넘어선 협업으로 시대가 원하는 것을 만든다. “인천 원도심 골목에는 ‘잘나가던 시절’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 점포의 기술력은 쉽게 흉내 낼 수 없지요. 긴 시간 쌓아온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잘 알아야. 함께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멀리 내다보고 곳곳이 참고 견디면, 끝내 좋은 날이 와. 난 평생 붓을 놓아본 적 없어. 큰돈 못 벌면 어때. 내 힘으로 여태 일해 버니, 이게 행복이지.” - 최명선

“어떨 때는 ‘내가 참 인내력을 갖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어. 내 생애 끝까지 할 거야.” - 전종원



젊은 감성과 노장의 숙련된 기술이 빚어낸 완벽한 팀워크. ‘개항로 프로젝트’의 최명선, 이창길, 박지훈, 전종원(왼쪽부터). 개항로에서



지역 맥주 ‘개항로 라거’가 나오기까지. 개발, 생산, 홍보를 노장과 청년이 힘을 모았다.



세대를 넘고, 시대를 잇다

그의 생각은 적중했다. 지역 오래된 가게의 노장들과 함께 브랜드 작업한 맥주 ‘개항로 라거’의 반응이 뜨겁다. 인천의 정체성과 혼을 담아 빚어낸 맛. ‘끝 맛이 좋아야 라거다.’ 시원하면서도 부드러운 목 넘김, 깨끗하게 떨어지는 끝 맛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개항로 프로젝트’ 이창길 대표의 머릿속에서 시작해, ‘인천 맥주’ 박지훈(45) 대표가 맛을 창조하고, 전종원(84) 목공예사가 병에 글씨를 새기고, 노신사 최명선(69) 화백이 모델로 나섰다.

“어머니가 ‘꿈에서 달을 보고 네가 태어났다. 너는 만인이 바라보는 직업을 택해야 한다’라고 하셨지.” 일흔이 다 된 최 화백은 젊을 때는 영화 간판을, 나이 들어서는 벽화를 그리며 평생 붓을 놓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씀이 그림을 이르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의 얼굴이 세상에 알려졌다.

“난 글씨를 잘 못 써. 서예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내 글씨가 뽀뽀뽀 뽀해도 ‘기가 막히다. 관록이 있다’ 하는 거야.” 전 목공예사는 60년 나무를 만지며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의 변화를 묵묵히 견뎠다. 그가 맞았다. 조금 투박하고 거칠어도 긴 시간 갈고닦은 손맛을, 기계가 쉽게 뽑아내는 글씨는 결코 따라갈 수 없다.

우리 시도 지난 4월 세대를 넘어 인천을 알리는 네 사람에게 ‘관광진흥 유공 표창장’을 수상하며 격려했다. 이 대표는 지역의 어른들과 한자리에 선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함께해야 합니다. 세대가 협력하면 힘을 더 내고 빛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쌓아온 시간의 깊이도 다르니까요.” 젊은 감성과 노장의 숙련된 기술이 빚어낸 완벽한 팀워크.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오래된 길 위에서 같은 꿈을 그리는 네 사람의 행보가 궁금하다. 시간의 깊이만큼 성장할 내일이 기대된다.

이 시대 어른들께

“어떻게 한 공간에서 몇십 년 같은 일을 하지? 특별한 뜻이나 철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만의 색깔은 분명 있습니다. 노장이 하면 클래식Classic이 됩니다. 시간은 결코 아무나 흉내 낼 수 없습니다.” - 이창길

“시에서 표창을 받아 감개무량합니다. 지역 어른과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자리에서 오래 같은 일을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의지를 존경합니다.” - 박지훈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님을 기립니다

유격 대원으로서, 첩보 대원으로서 자유 수호를 위해 온몸으로 적과 맞서 싸운 푸른 청춘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평화롭게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그들의 넋을 위로하는 현충탑과 위령탑을 살펴본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오인영 사진작가



◁ 인천광역시 현충탑

최근 야간 경관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수봉공원에는 인천광역시 현충탑이 있다. 현충탑은 인천 출신으로 6·25전쟁에 참가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영령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972년 공원 정상에 세워졌다. 비문에는 ‘나라를 지킨 영령들을 여기 모신다. 몸은 쓰러져도 넋은 나라를 놓지 않고 뜻은 겨레와 얽매이어 장하고 매운 정신 항해 마르도록 시민의 가슴에 흐리라’라고 새겨져 있다.

미추홀구 도화동 산50-1

▷ 재일 학도 의용군 참전비

6·25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에 거주하던 유학생과 재일 동포 자녀 642명이 재일학도의용군을 조직했다. 의용군은 미국과 국군 부대에 수십명 단위로 흩어져 인천상륙작전, 평양 입성, 압록강 해산진 전투, 백마고지 전투 등에 참전했다. 그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1979년 수봉공원에 재일 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가 건립됐다.

미추홀구 주안2동 산29-1



◁ 강화군 현충탑

섬은 적의 침공을 제일선에서 막아내는 바람막이다. 6·25전쟁 때 38선과 맞닿아 있던 우리 지역의 섬들은 온몸으로 적의 침입을 막아냈다. 그런 이유로 강화도에는 호국 영령들의 혼이 잠들어 있는 현충 관련 기념비가 많다. 강화군 관청리에는 6·25전쟁 당시 산화한 강화 출신 전몰 군경 1,013명(국군 735명, 특공대 18명, 경찰관 36명, 유격군 224명)의 위령탑인 현충탑이 세워져 있다.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산20

▷ 강화 유격용사 위령탑

1951년 1·4후퇴 당시 강화를 사수하기 위해 평안도, 황해도 연백군, 경기도 개풍군, 개성에서 강화도로 피란 온 애국 청년 1,240명이 유격대를 조직해 용감하게 싸웠다. 이후 육군 제 5816부대 직속 유격대로 편성되어 개성까지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들 유격 용사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위령탑이다. 탑 머리는 평화와 자유 수호, 왼쪽 날개는 용사의 참혼, 오른쪽 날개는 조국의 안위, 탑 받침은 숭고한 용사의 넋을 대해로 펼침을 상징한다.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208-2



◁ 부평전투 승전 기념비

부평전투는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의 최우선 과제이던 서울 수복의 밑거름을 제공했다. 경인국도를 따라 서울로 진격하던 연합군은 부평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던 적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적을 섬멸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렀다. 부평전투 승전 기념비는 당시 부평지역에서 있었던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UN의 깃발 아래 조국의 수호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한국과 미국 젊은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부평구 아트센터로 168



◁ 반공유격 전적비

1·4후퇴 당시 북에서 백령도로 많은 사람들이 피란을 왔다. 1951년 2월 28일 월남민 중 8,000여 명이 유엔군 관할 하에 반공유격대(8240부대:동키부대)를 조직해 황해도 일원의 기습 작전과 백령도 수호에 크나큰 전공을 세웠다. 반공유격대의 전공을 기리고 장렬히 산화한 영령 516명의 넋을 위로하고자 1961년 8월 15일 전적비를 건립했다.

웅진군 진촌리 산146-1



△ 해군 영흥도 전적비

웅진군 영흥도는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점이었다. 영흥도는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전에 적의 동태를 살피는 첩보 활동의 주요 기지였다. 미국 극동사령부 클라크 대위와 해군본부 정보국 임병래 중위가 이끄는 특수공작대가 수집한 정보는 9·15 인천상륙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륙작전을 하루 앞둔 9월 14일 인민군 부대가 영흥도를 기습 공격했다. 우리 해군 10여 명과 영흥도 애국청년인 해군의용단원 등은 섬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우다 모두 전사했다.

웅진군 영흥면 내리 산314

▷ 용유도 충혼탑

1950년 11월 17일 평안북도에 진격했던 유엔군이 중공군의 참전으로 후퇴하자 평안도 일대 애국청년들과 오산학교 학생이 힘을 모아 1950년 11월 22일 유격 백마부대를 만들었다. 백마부대는 서해 도서 지역을 오가며 북한군 3,000여 명을 사살하고 중공군 600여 명을 생포하는 등 숏한 전과를 올리며 유엔군의 정규 작전에 크게 도움을 준 비정규군 전투부대이다. 이에 못지않게 아군 552명이 전사하는 등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이 충혼탑은 그때 희생당한 전사자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중구 을왕동 산119



△ 유격군 충혼전적비

육군 을지 제2병단과 함께 ‘타이거여단’이란 이름의 반공유격대 8240부대 용사들이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전쟁에 참전해 목숨을 바친 것을 위로하기 위해 세웠다. 그들은 소총이나 폭발물만 지니고 적의 군사 시설에 벌떼처럼 달려들어 폭파하고 흉탄에 맞아 피 흘리며 쓰러져 갔다. 북녘 산천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교동도에 기단 높이 1.2m, 비 높이 7.2m의 돌비석으로 세워졌다.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8-2



◁ 콜롬비아군 참전 기념비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즉시 파병을 결정했고, 콜롬비아는 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 지원군을 보냈다. 콜롬비아는 고대 병력을 포함해 연인원 5,100여 명의 병력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한국에 보냈다. 이들은 김화 400고지 전투, 연천 180고지 전투, 골모고지 전투 등에서 격전을 치렀다. 콜롬비아군은 군율이 엄하고 용맹하기로 소문났으며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는 신조를 지켜 전투마다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피를 흘린 콜롬비아군을 기리고자 1975년 9월 건립했다.

서구 승학로 337



투명한 페트병을 예쁜 강아지
옷으로 재탄생시킨
라운드컴퍼니 이예솔 대표



아이디어 반짝 업사이클 제품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제품들도 그 쓰임이 끝나거나 취향이 변하면 처치 곤란의 애물단지가 된다. 이렇게 쓸모가 없어져 버려지는 제품들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 버려지는 폐자재에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와 노력을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킨 사람들이 있다.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재활용에 기반한 아이디어와 스타일을 더하는 업사이클. 다양한 업사이클 제품들과 업사이클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Up 페플라스틱에서 강아지 옷으로 라운드컴퍼니



버려지는 투명한 페트병에서 추출한 실로 원단을 만들고, 디자인, 발수, 방수 등의 후가공을 거쳐 예쁜 강아지 옷을 만들었다. 시원한 촉감에 폴리에스테르 원단의 양증맞은 옷은 한낮의 더위로부터 강아지를 보호하고, 폭신평신했던 패딩은 겨울 차가운 바람을 막아준다.

‘라운드컴퍼니’는 페플라스틱으로 만든 원사를 이용해 강아지 옷을 만드는 곳이다. ‘즐거움’이라는 순우리말 라온에 라운드Round(순환)를 더해 ‘자원을 즐겁게 순환시킨다’는 뜻을 담아 친화적 디자인의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대학에서 의류학을 전공하면서 소재에 대한 공부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새로운 소재를 찾다가 페트병에서 추출한 폴리에스테르로 강아지 옷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예솔(31) 라운드컴퍼니 대표는 어릴 적부터 키워온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전공인 의류학을 이용해 창업을 시작한 셈이다. 앞으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인 그는 더운 날씨에 대비해 개발 중인 쿨매트도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활용할 계획이라 한다.

“업사이클링, 저처럼 좋아하는 소재부터 시작해 보세요. 분명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주소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23층 문의 0507-1385-8566

Up 페케이블로 만든 마스크 스트랩 니어투

유사시 마스크 스트랩이
탈착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자석으로 만든 ‘안전 마스크 스트랩’



키즈 카페에서 세 살 된 딸아이의 목 뒤로 길게 늘어진 마스크 스트랩이 내내 눈에 거슬렸다. 어딘가에 걸리면 뒤로 넘어지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뒤도 관찮을까?

“외국에서는 아이의 안전을 생각해 수영복이나 모자에 달린 끈 길이에 대한 규정이 아주 엄격합니다. 아직 마스크 스트랩에 대한 안전 규정이 없는데, 연결 고리가 똑딱단추로 되어 있는 스트랩은 돌발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박세준(38) 니어투 대표는 위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마스크 스트랩이 탈착될 수 있도록 연결 고리에 자석을 사용한 안전 마스크 스트랩을 제작했다. 환경과 자원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더해 스트랩은 이어폰 케이블을 활용했다. 케이블에 사용되는 TPU, TPE 소재는 유아용품 제작에도 사용하는 친환경 소재다. “니어투는 기업 상담 센터에서 사용하는

헤드셋과 각종 통신 장비에 사용하는 무선 이어셋 등 음향기기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요즘 무선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어폰 케이블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폐케이블이 아까워서 고민하던 중 마스크 스트랩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직은 시제품 제작 단계지만 아이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폐케이블 마스크 스트랩이 적극 활용되기 바란다고. “업사이클을 통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린 것도 다시 쓸 수 있고 다르게 활용될 수 있다고 믿어요.”

주소 부평구 부평대로 293 713호 문의 032-719-4232



업사이클 제품 ‘안전 마스크 스트랩’을 제작한 니어투의 박세준 대표



자투리 모아 패션 소품 제작 얼라이브피스

폐기 예정인 소재로 멋진 패션제품을 제작한 얼라이브피스 유현지 대표



시각컨텐츠 디자인을 전공하던 대학 시절 교수님의 업사이클 강의가 잊히지 않았다. 공사장에 버려진 산업 폐기물로 졸업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업사이클에 대한 관심은 커졌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폐기 예정인 MDF와 소파 업체에서 남은 자투리 천을 이용해 새로운 걸 만들어보면 어떨까?

‘얼라이브피스’는 무늬목 MDF, 아크릴, 가죽 등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조각에 직접 디자인한 도안을 얹어 레이저 커팅 방식으로 유니크한 액세서리 및 패션 소품을 제작하는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다. 조그만 장신구에서 시작해 지금은 클러치와 핸드백 등 스타일리시한 패션 제품을 제작한다.

“폐기 예정인 소재로 제품을 만들면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양한 컬러와 사이즈의 소재들로 제작하려다 보니, 일반 공장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거나 대량생산 수량에 미치지 못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유현지(32) 얼라이브피스 대표는 소량 생산을 하더라도 절차나 비용 면에서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업사이클 제품들의 가격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업사이클 아이디어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작은 공장과의 매칭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주소 서구 서달로 203 대진 9-103 문의 apiece29@naver.com



커피박으로 화분과 머그컵을 문화공간 ‘노닐다’



노닐다의 이학정 대표는 버려지는 커피박으로 화분과 컵홀더 등 멋진 디자인 소품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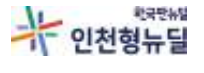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면 무려 16g의 커피박(커피 찌꺼기)이 나온다. 커피를 추출할 때 원두는 0.2%만 소요되고, 나머지 99.8%가 커피박이 되는 것이다. 커피 소비량과 함께 증가한 커피박을 지금까지 재활용이 힘들어 매립 허가를 받아 소각해 왔다.

‘문화공간 노닐다’에서는 버려지는 커피박에 흙을 섞고 빛은 후 가마에 구워내 화분과 그릇을 만든다. 은은한 커피의 색감과 독특한 질감이 상당히 멋스럽다. “문화공간 노닐다는 마을 거점 공간이며 주민들의 동아리 모임과 교육 강좌 등 지역 주민들의 네트워크 공간입니다. 작은 마을 문화 축제와 재능 기부 및 창작 활동으로 문화·예술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창작품의 제작과 판매를 통해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금을 지역공동체 마을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커피박이 아까워 화분과 그릇을 만들었다는 이학정(43) 문화공간 노닐다 대표는 솜씨 좋은 주민들 덕분에 한복 자투리로 컵받침도 만들고, 커피박을 3D 프린팅 소재인 필라멘트와 섞어 다시 3D 프린팅으로 컵홀더 등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주변 반응이 좋았다고 말한다. “업사이클, 더디지만 의미 있는 시도예요.”

주소 남동구 용천로 14 문의 070-4046-2410





시민을 위한 자원순환 안내서

우리 시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 여기서 잠깐, ‘자원순환’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고 모호할 수 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Q&A로 알아보는 우리 시 자원순환 정책의 모든 것. 한 장 한 장 따라가다 보면, 인천이 열어가는 쓰레기 독립, 친환경 미래가 보인다.

Q6 인천에코랜드, 영흥도 재도약의 계기가 될까요?



인천에코랜드, 어떻게 운영되나요?

인천에코랜드는 남양주와 청주 등 국내 선진 매립지의 장점만을 모은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입니다. 내 집 앞, 내 아이 곁에 있어도 걱정 없는 완벽한 친환경 시설로 조성됩니다. 인천에코랜드에는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된 소각재를 재활용한 후 남은 잔재물과 기타 불연성 물질만이 매립됩니다. 기존 매립 시설과는 달리 지하 30m~40m에 매립하고, 상부는 밀폐형 에어돔을 설치해 주변 지역에 환경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됩니다. 운송 차량 역시 완전한 밀폐형으로 운영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평일 운행 시간도 주민들과의 협의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인천에코랜드 최종 후보지로 영흥도가 선정됐습니다. 우리 시는 영흥도를 환경특별시 인천의 중심이자, 친환경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특별한 섬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흥도는 ‘친환경 특별섬’이라는 또 다른 수식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됐습니다. 인천에코랜드 조성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영흥도의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 인천에코랜드 조성 개요

위치 :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 일원



부지 면적	89만m ² (약 27만평)
조성 면적	24만m ² (약 7만평)
1일 평균 매립량	161m ² (용역 기준)
누적 매립량	234만m ³
사용 기간	40년

영흥도, 안심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에코랜드를 통해 영흥도는 ‘친환경 특별섬’이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화력발전소에 따른 오염된 영흥도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간 영흥도는 오랜 세월 화력발전소에서 날아든 석탄 분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더이상 이러한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야적장에 돔을 씌워 석탄 분진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또 화력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는 것은 물론이고, LNG 전환 속도를 높여 주민들에게 영흥도의 맑은 하늘과 건강할 권리를 돌려드릴 것입니다.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리 건설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시는 영흥제2대교 건설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안산시와 협의하여 안산시 대부도(구봉도 일원)에서 영흥도(십리포 일원)까지 약 5km~6km 구간을 2차로로 건설하면 인천 내륙과 영흥도를 오가는 시간이 30여 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흥도를 수도권 관광 랜드마크로 변화시킬 발전 계획 수립 용역도 올해 하반기 실시합니다. 기타 주민지원 사업은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로 영흥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세상 모든 학교는 귀하다. 허나 그 속에서도 특별한 전통과 저력을 품은 곳이 있다. 학교를 통해 도시를 들여다보는 인천 명문교를 찾아서. 그 열세 번째 등곳길의 목적지는 인천박문초등학교(이하 박문초)다. 사랑은 대물림된다고 했던가. 학창 시절 학교에서 받은 사랑을 자녀들과 나누고 싶었던 엄마와 그 사랑을 더 큰 세상에 뿌리내리게 될 아이들. ‘박문’이라는 공통분모로 같은 추억을 써 내려가고 있는 그 길을 두 딸아이의 학부모이자 선배인 박수진(67회 졸업) 씨와 함께 걸었다.

글 전규화 자유기고가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수구 동춘동에 자리한 인천박문초등학교. 중구 답동 성당 내 자리했다가 2001년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3대로 이어진 박문에 대한 굳건한 믿음

1986년, 박수진(43) 씨는 박문초에 입학했다. 박문여중(현 박문중학교)과 박문여고를 나온 어머니의 뜻이었다. 어머니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박문’이라는 이름 아래 이어지는 학풍만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다 같지 않을까요? 6년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어머니가 저를 박문초에 보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믿음과 확신은 제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졌죠.”

5학년 김단아, 3학년 김로아. 어여쁜 두 딸아이도 그렇게 엄마의 후배가 됐다. 물론 쌓인 추억과 쌓아가고 있는 추억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박씨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박문초는 중구에 자리한 답동성당이 품고 있었

다. 1900년 9월 1일 개교한 유서 깊은 교사校舍였다. 학교 뒷마당에 있던 사육장에서 토끼와 칠면조를 키웠던 일,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뛰놀던 작은 연못 주변에 얹힌 추억은 오롯이 엄마만의 것이다. 하지만 개교 10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알렸던 2001년 현재의 연수구 동춘동으로 자리를 옮긴 학교에서도 박문초의 전통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선생님이 권위적이었을 때예요. 박문초는 달랐어요. 선생님들이 부모님 같고 친구 같았거든요. 선생님과 같이 고무줄놀이하고 땅따먹기도 했었죠. 그때의 좋았던 기억, 따뜻했던 추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립초등학교라는 조금은 딱딱한 이름 이면에 자리한 인간애적인 전통과 사랑. 어쩌면 이것이 120년이라는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도 모든 동문이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박문초의 가장 큰 경쟁력일지 모른다.

120년을 이어온 공감의 역사

박문초등학교는 올해 개교 12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학교의 120년 역사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고, 박수진 씨도 힘을 보탰다.

“아이들을 타임머신에 태워 학교의 과거를 여행했죠. ‘라떼는 말이야’라는 주제로 제가 학교에 다니던 당시의 추억을 후배들과 공유했어요. 그 과정에서 새삼 깨닫게 된 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한 교육 인프라와 활동이었어요.”

과학부와 컴퓨터부, 영어회화부 등 1980년대에 ‘국민학교’를 다녔던 이들은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경험들이 박문초에서는 가능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하는 학교의 한발 빠른 움직임이었다.

오늘날의 박문초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우주과학실과 생명과학실, 미래교실, AI(인공지능)융합교실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첨단 교실은 물론이고, 새암터와 배움누리, 신난마루, 미술실과 음악실 등 감성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특성화 교실도 다채롭다.

“시대는 달라도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때마다 ‘동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곤 해요. ‘한우리 모임’이라고 1~6학년 학생 한 명씩을 형제·자매로 엮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요즘처럼 자녀가 한두 명인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형제간 우애와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박문초만의 귀한 전통이죠.”

박문초는 미래교실과 AI융합교실 등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교내 곳곳에 120년 유구한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오래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사랑과 감사로 이어가는 새로운 미래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 학교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예상하며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박문초가 지향하는 바는 선명하다. 박원희 교장 수녀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예측하기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리더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큰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박문초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인으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미래 사회가 진보하고 발전한다 해도 ‘사람됨’에 대한 갈망은 불변의 이치다. 박문초가 전인 교육과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6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통해 충분한 사랑과 신뢰를 받은 아이들은 국경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미래 사회에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박문초의 굳은 믿음이다.

“사람됨의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AI와 로봇 등 시대상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지식적 교육, 예술을 통한 인문학 미술 수업 등 다양한 경험으로 이어지는 감성적 교육,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영성적 교육까지, 120년 박문초가 이어온 변치 않는 전통을 통해 글로벌 인재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학교의 목표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면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박문초의 아이들. 교문을 들어설 때마다 경험하는 따뜻한 환대와 사랑, 굳건한 신뢰가 200년 역사를 향해가는 박문초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한다.



감사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박원희 교장 수녀



오랜 역사만큼, 학교는 다방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천주교 인천교구장 정신철(52회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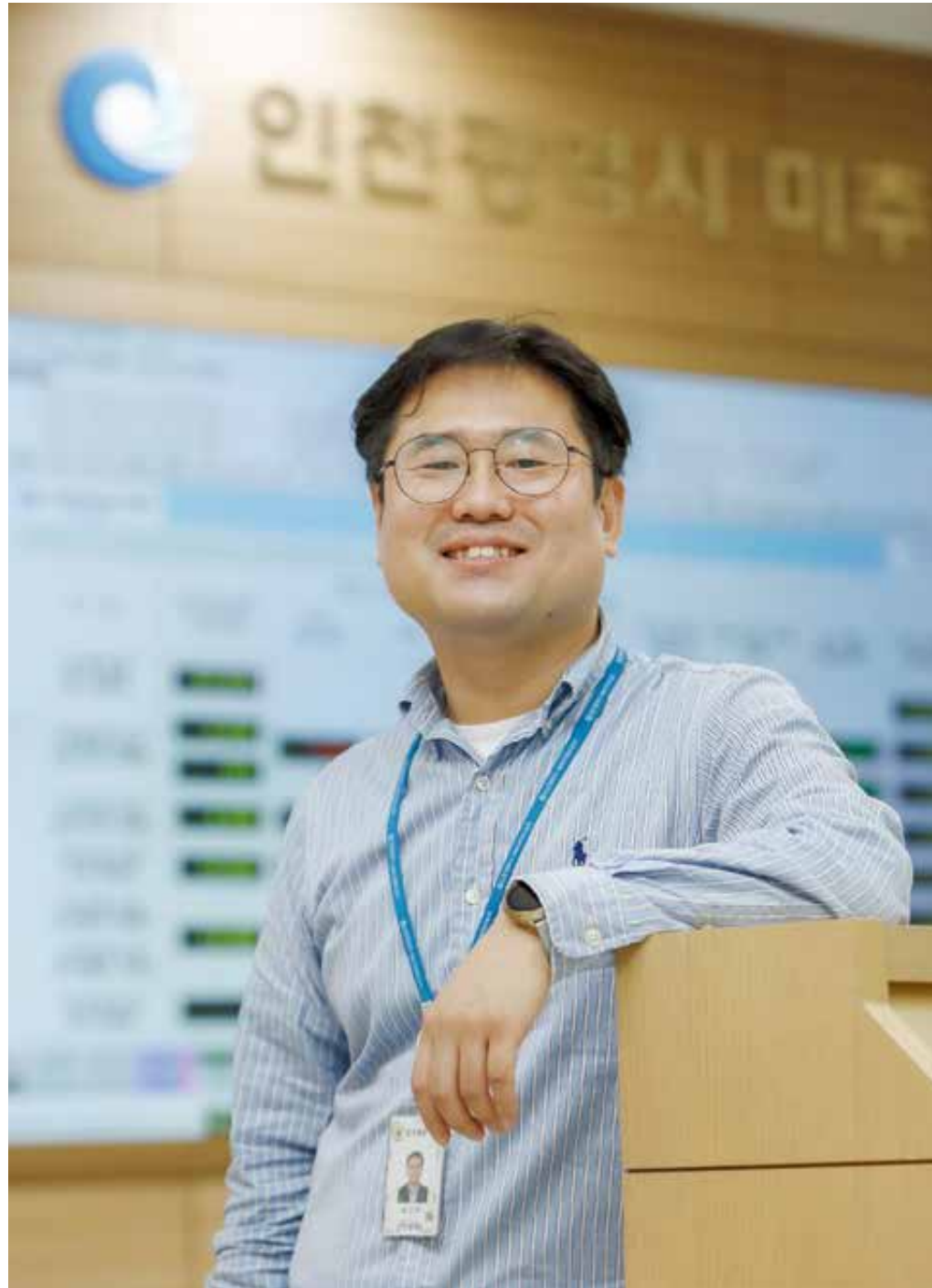
1964년 동구 송림동에서 태어나 1993년 사제품을 받았다. 파리가톨릭대학교에서 실천 신학을 공부했으며, 역곡2동 본당 보좌 신부,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교구 성소국장 등을 지낸 뒤 2010년 보좌 주교를 거쳐 2016년 제3대 인천교구장 주교로 임명됐다.

방송인 염경환(58회 졸업)

박문초를 거쳐 제물포중학교와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3년 SBS 2기 공채 개그맨으로 방송에 입문했으며, 이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쌓았다. 김구라, 지상렬 등 인천 출신이자 제물포고등학교 동기들과 방송에서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달라진 인천 수돗물, 정수기 물보다 훨씬 좋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송진우

“

수돗물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과 여러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수기로 여과할 경우 좋은 성분이 제거될 수 있어요.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수돗물을 생수처럼 마신다. 수돗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엑기스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사업본부 6층 휴게실에 딱 한 대, 정수기가 있긴 하다. 물론 까다로운 고객을 위한 것이다. 솔직히 정수기를 권하고 싶지는 않다. “정수기로 여과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영양소와 미네랄이 제거될 수 있거든요.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게 사실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시면 더 맛이 좋지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송진우(46) 주무관(6급)은 “수돗물을 직접 만들어 공급하는 일을 하다 보니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한지 누구보다 잘 안다”며 “막연한 불안감이나 정보를 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걸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상수도 분야 전문관인 그의 업무는 ‘스마트관망’, ‘지리 정보 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이다. 미세혈관처럼 각 지역으로 공급하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로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인천의 상수도관은 7,800km에 이릅니다. 그 관을 통해 공급하는 수돗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리하는 게 제 일입니다. 시시각각 미세한 부분까지 체크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인천 출생으로 초중고, 대학까지 인천에서 다닌 송 주무관이 풍운의 꿈을 안고 공무원이 된 건 지난 2004년. 미추홀구청 토목직 9급으로 시작한 그는 경제청과 강화군청 등을 거쳐 지난 2016년 1월 상수도사업본부로 전입한다. 그렇게 2년 뒤인 2018년 송 주무관은 상수도 분야 전문가임을 공인받는 ‘전문관’ 직위를 취득한다.

“공무원들은 어디에 갖다 놓건, 무슨 일을 시키건 다 해냅니다. 그런데 상수도 분야는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만큼 전문성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전문관 공모 때 응시해 합격했어요.” 그렇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6년째 일하고 있는 송 주무관은 2019년, 2020년 잇따라 악재를 만난다. 적수와 유출 관련 수질 사고이다.

“저를 비롯해 전 직원들이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매달렸어요. 쉽지 않았지만 잘 극복해 냈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위기는 기회였다. 송 주무관은 두 차례의 수질 사고 이후 인천의 수돗물 공급관리 시스템이 몇 단계 뛰어올랐다고 강조했다. 정수장 시설 운영 개선, 인력 전문성 강화, 시민 소통 강화 등 인천만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 정책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견고해졌다. 전문관 직위 취득에 이어 그는 조만간 상수도 관련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연구하는 시간과 시민행복은 정비례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때쯤 수돗물을 받아 마시는 그의 목젯에서 건강미가 팔팔팔 넘쳐흘렀다.



맑고 깨끗한 인천 수돗물 ISO 22000을 향하여!



인천 수돗물이 한결 좋아졌다.
남동정수사업소 전경

인천 수돗물이 확 달라졌다. 한결 맑고 깨끗해졌다. 우리 시는 인천 수돗물의 식품안전 부문 국제 규격인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취득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수돗물의 수준을 식품처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우리 시는 올해 초부터 ‘수요자 중심의 상수도 행정 시스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37개의 상수도 혁신 과제를 선정해 83%를 완료했으며 100%를 향해 질주하는 중이다. 위기관리 대응체계 확립, 관로·관망의 체계적 관리와 선진 인프라 구축, 시민 서비스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 유충 재발 방지를 위한 정수시설 운영 개선 등이 주요 혁신 과제다. 요약하면 시설을 개선하고 전문성과 시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상수도 정책 무엇이 달라졌을까.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제공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ISO 22000 인증 획득과 위기관리 대응체계 혁신

식품안전 부문 국제 규격인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을 오는 9월 취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수질관리는 물론이고 식품·위생 수준의 국제적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시는 오는 9월안에 인증을 획득해 ‘건강한 수돗물’로의 대시민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수계전환 시 시민 대처 요령을 알려주고, 수질안전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과 전문 인력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시민 서비스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

수돗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질관리 전문 인력을 직접 현장에 보내 해결하는 인천형 워터케어를 실시한다. 민원이 들어오면 10개조 20명으로 짜인 워터코디와 워터닥터가 방문해 수질검사를 해주거나 옥내 배관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을 해준다. 아연과 망간을 비롯해 7가지 항목을 검사하고 이상 시 배관 상태 진단과 배관 개량도 지원한다. 먹는 물 수질 기준보다 강화된 맛, 냄새, 색, 느낌, 이물질 등 5개 평가 지표를 설정해 수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며, 전국 최초 민·관 거버넌스 정책자문단인 ‘인천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위원회’를 운영한다. 수돗물 시민평가단과 대학생 서포터즈를 활용한 시민 모니터링도 추진중이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관로와 관망의 체계적 관리와 선진 인프라 구축이 목표이다. 총사업비 476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다항목 수질계측기 등 10개의 기술별 장비를 구매하고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노후관을 조기 교체하고 수질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관 세척을 추진한다. 배수지 건설 공사와 관로 복선화, 스마트 물관리 도입을 위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정밀 여과장치,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 수질정보 시스템 고도화와 경보 시스템도 마련한다.



노인들의
워라벨 세상
인천

By 유용필



06 Culture Calendar

이달의 전시

제57회 인천광역시사진대전 6월 3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상생-함께 서다’전 6월 11일~17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3회 김정아 화실회원전 6월 18일~24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이상희 개인전 6월 3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인·예·전(인천예술고 교·강사진) 6월 11일~17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法古創新(법고창신)전 6월 18일~24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삶의 사색전 6월 3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제29회 사진회원작품전 6월 11일~17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인천구상작가회전 6월 18일~24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한글 서예 동행전 6월 3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4인4색전 6월 11일~17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제39회 대한민국수채화협회전 및 제13회 대한민국수채화공모전 6월 25일~7월 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소·미추홀전시실
제33회 인천시서예대전 및 초대작가전 6월 4일~10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소·미추홀전시실	인천환경미술제 ‘바다, 도시, 사람’전 6월 18일~24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코로나19 안전 수칙에 따른 안전한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으니
문의처에 꼭 확인 후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공연·박람회

02 수 전래동화 뮤지컬 ‘효자호랑이’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일 오전 10시 30분 3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일반 2만원, 단체 7,000원 ☎ 02-882-9001	05 토 황·금·토·끼 시민과 함께하는 팼페라의 선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31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5시 무료(선착순) ☎ 1588-2341
04 금 황·금·토·끼 환타스틱스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43	06 토 살롱콘서트 ‘휴’(休, HUE) 스트릿건즈	08 화 2021학년도 인천예술고등학교 제24회 정기연주회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 032-627-1180
		12 토 2021 김창옥 토크쇼 시즌2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7만7,000원, S석 6만6,000원 ☎ 1566-6551



스테이지149 - 어린이명작무대 감성 연극 ‘에스메의 여름’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2만원 ☎ 1588-2341	18 금 악극 ‘여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8일 오후 7시 30분 19일 오후 3시, 7시 30분 20일 오후 3시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 1588-2341	25 금 스테이지149 - 인천열전 연극 ‘삼거리 골목식당’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5일 오후 7시 30분 26일 오후 3시 전석 2만원 ☎ 1588-2341
황·금·토·끼 챔버 홀릭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43	19 토 어린이 뮤지컬 ‘알라딘’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9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20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3시 30분 전석 4만4,000원 ☎ 02-555-0822	26 토 황·금·토·끼 토닥토닥 LED BRASS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31
13 일 유석뷰트색소폰 작은음악회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1시 30분 무료 ☎ 010-3793-4442	황·금·토·끼 어린이 가족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무료 ☎ 032-420-2731	살롱콘서트 ‘휴’(休, HUE) 권나무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5시 무료(선착순) ☎ 1588-2341
살롱콘서트 ‘휴’(休, HUE) 시와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5시 무료(선착순) ☎ 1588-2341	살롱콘서트 ‘휴’(休, HUE) 김사월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5시 무료(선착순) ☎ 1588-2341	27 일 살롱콘서트 ‘휴’(休, HUE) 이주영&우주히피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5시 무료(선착순) ☎ 1588-2341
16 수 2021 인천가구박람회 송도컨벤시아 1·2홀 6월 16일~20일 오전 10시~오후 6시 3,000원 (사전 등록 무료) ☎ 02-546-5200	20 일 살롱콘서트 ‘휴’(休, HUE) 까데호(Cadejo)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오후 5시 무료(선착순) ☎ 1588-2341	29 화 제24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전석 초대 ☎ 032-873-7772
2021 커피콘서트 IV 음악 그룹 the툰 ‘월담’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000원 ☎ 1588-2341	23 수 학산가족음악회-풍물판, 한판! 학산소극장 오후 7시 무료(30석) ☎ 032-866-3994	





철로 위에 널빤지를 올려놓고 널뛰기를 하는 소녀들, 깨진 블록과 화염에 휩싸인 자동차. 인천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지금 1960~1970년대의 향기가 솔솔 풍겨 나온다. ‘찰나의 인천’ 사진전이 열리는 중이다. 전시 작품은 사진기자 출신 원로 사진가 박근원(82) 씨가 기증한 흑백사진들로 꾸며졌다. 평범한 이웃의 일상, 사건, 풍경 등 전시는 3부로 기획됐다. 전시는 오는 6월 20일까지며, 7월 중순부터 인천시청역 열린박물관에서 2차 전시를 진행한다. ‘사진 속 인천, 그때 그 시절’로 들어가 본다.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제공 박근원

찰나의 인천



철로 위의 소녀들(1978)

가난했던 시절, 기차길은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였다. 소녀들은 널뛰기나 고무줄 놀이를 했고 사내아이들은 못이나 병뚜껑을 철로 위에 얹어놓은 채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천천히 지나가는 화물차 칸에 올라타는 간 큰 아이들도 있었다. 수인선 용현역(현 인하대역) 근처. 세 명의 소녀가 철로 위에 널빤지를 얹고 널뛰기를 하고 있다. 그 모습이 위태롭다기보다 정겨워 보인다.



인천공설운동장(1978)

인천공설운동장은 축구, 야구, 육상 등 빅 이벤트가 펼쳐지던 인천의 랜드마크였다. 1934년 지금의 자리에 들어섰는데 영어의 ‘그라운드Ground’와 우리말 ‘운동장’을 조합해 ‘그라운드장’이란 별칭을 갖고 있었다. 나중에 인천송의종합운동장이라 이름을 바꿨다가 2012년 지금의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들어섰다. 전국체육대회가 열린 어느 날, 한 갓을 쓴 ‘양반’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초등학교 운동회(1977)

1970년대 운동회는 소풍과 더불어 아이들의 2대 축제였다. 운동회가 열리는 날은 김밥과 삶은 달걀, 사이다를 먹을 수 있었고, 달리기를 잘하면 연필과 공책을 상으로 타 갈 수 있었다. 문학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다. 하얀 운동복을 입고 타이어를 굴리는 개구쟁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난다. 사진 왼쪽 위 ‘때려 잡’이라는 표어가 눈에 들어온다. ‘반공’이 국시이던 시절 ‘때려잡자 공산당’이란 구호가 거리 곳곳에 걸려 있었다.

인천의 센강 수문통(1984)

화수부두에서 송현동을 거쳐 배다리까지 이어진 물길이 있었다. 그중 현재의 화평파출소~송현파출소 약 300m 갯골 수로를 사람들은 ‘수문통’이라고 불렀다. 지대가 낮다 보니 인근 지역 생활하수가 이곳으로 흘러들었다. 이따금 사산아死産兒나 땃줄을 싣 시멘트 봉지가 떠다니기도 했다. 여름철이면 악취가 코를 찌르는 ‘똥바다’였지만 사람들은 수문통을 ‘세느(센)강’이라 불렀다. 20여 년 전 수문통은 완전히 복개돼 지금은 도로와 주차장이 되었다.





9·28서울수복기념 제3회 국제마라톤대회(1966)

한국전쟁 당시 서울수복을 기념하기 위한 마라톤이 1966년 10월 30일 열렸다. 이 대회엔 한국전쟁 참전군이면서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1960 로마, 1964 도쿄)인 아베베 비킬라Abebe Bikila가 참가했다. 아베베는 인천 중구 해안동 로터리를 출발해 경인가도를 따라 서울 광화문까지 42.195km를 달렸다. 아베베가 경기 시작 전 다리 검사를 받고 있다.

인천직할시대 개막(1981)

1981년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돼 인천직할시로 승격했다. 당시 인천직할시청은 지금의 중구청으로 김찬희 인천시장과 서정화 내무부장관이 함께 현판을 붙이는 모습이다. 인천은 이후 1995년 인천광역시로 발돋움하며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오는 7월 1일 인천시 독립 40주년을 맞는다.



5·3민주항쟁(1986)

독재 타도. 1986년 5월 3일 주안시민회관 사거리에 5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재야운동가와 학생, 노동자들로 이뤄진 집회 참가자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1985년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급부상한 신민당이 열려 했던 ‘개헌 추진위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 및 현판식’은 순식간에 민주화 촉구 시위로 타올랐다. 6월 항쟁에 불을 붙인 5·3항쟁이다. ‘신한민주당 헌법개정 추진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장’이라 쓴 플래카드와 ‘이민우 총재, 김대중 선생, 김영삼 선생 내인 환영’ 플래카드가 시민회관 앞에 붙어 있다. 불타는 자동차 앞에서 한 시민이 ‘전두환은 헛소리 말고 물러가라’란 1인용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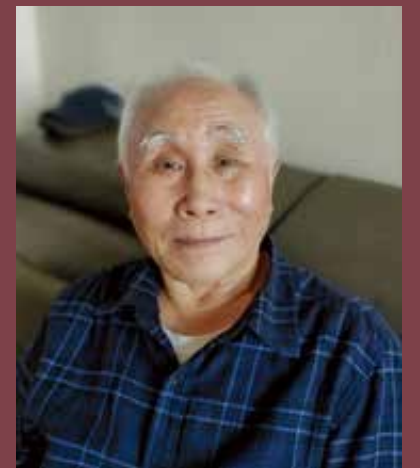
영원한 사진기자 박근원

격동기 인천의 역사, 반세기 동안 기록하다

“사진이 없었다면 박근원이란 사람도 없었을 거야.” 박근원(82)은 사진작가가 아니라 ‘사진기자’다. 1970년 연합신문에 입사해 인천일보(1988), 기호일보(1997)를 거치며 사진기자로 활약해 왔다.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 박 기자는 한국전쟁 때 아버지의 배를 타고 화수부두로 왔다. 배 안에서 수개월을 살던 그의 가족은 화수동 77번지에 정착한다. 비가 줄줄 새는 판잣집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를 졸라 펜탁스 카메라를 얻은 그는 인천 곳곳을 누비며 닥치는 대로 셔터를 눌렀다. 그렇게 역사적 사건 현장, 일상의 풍경 등 반세기 동안 인천을 기록해 왔다. 평생 찍은 사진 중 3,000여 장을 선별해 인천시립박물관에 기증한 때는 5년 전이다. 그 가운데 43점을 추려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2007년 언론 부문 인천시문화상을 수상한 박근원 대가자는 현재 약간의 난청에 알츠하이머 초기 증세를 보이는 것을 빼면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카메라를 메고 다시 현장으로 달려갈 생각이다. 교동도 출신의 아내 조순옥(74) 여사와의 사이에 진화(55, 화가), 진숙(51, 연주자), 진영(48, 문인) 세 딸을 두었다.



◦ IMAGE NEWS ◦

01

안전한 I



#전국 최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엘로카펫
#연내 100% 설치 #인천형 표준 모델 마련
#연구구와 서구 시범 운영

02

꼼꼼한 I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 30km/h 이상 18개소
#하향 심의 완료 #화물차 통행 미제한 구간 108개소
#개편 추진

03

튼튼한 I



#실버 교통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회,
경찰관 배치·운영 #교통안전 교육 확대
#교통안전 리더 통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04

행복한 I



#아동 학대 원천 차단 #대응 자문단 본격 운영
#매월 회의 실시 #기존 아동 학대 방지 대책
수정·보완 #정책에 적극 반영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인천 뉴스 플러스

- + 우리 시는 지난 5월 24일 국내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다짐하는 선언식에 참여했다.
- + 오는 7월 1일 인천시 독립 40년을 맞는 우리 시가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 + 지난 5월 17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 업무의 정책 결정 역할 등을 할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 +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을 잇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이 철도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지난 5월 22일 개통했다.
- + 우리 시는 원도심 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선·통신선(공중케이블) 정비에 나선다.
- + 인천 도심 인근에 있는 작은 섬인 세어도 전체를 ‘갯벌 정원’처럼 만드는 종합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관내 전통시장 58개소에 대한 정밀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네이버 및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 NEWS BRIEF ◦

인천시 독립 40년, 다채로운 행사

오는 7월 1일 직할시 독립 40년을 맞는 우리 시가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우리 시는 1981년 7월 1일 경기도로부터 독립해 인천직할시로 승격한 독립 40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오는 7월 1일을 전후해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인천 독립 40년 기념식과 시장관사 개방 기념행사, 인천시장 기자간담회와 인천 40년 기념토론회, 시민시장 대토론회와 개항장 문화재 (소)야행, 야외영화 상영회 및 감독과의 만남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 독립 40년 행사 시민자문단’이 지난 5월 4일 발족, 첫 회의를 개최하고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을 단장으로, 서종국 인천대학교 교수를 부단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인천 전문가와 도시·행정 전문가, 행사·기획 전문가 및 일반 시민, 시민단체 대표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은 인천 독립 40년 행사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을 계획이다.

시 정책기획관실 032-440-2383

코로나 시대 반려식물로 힐링하세요~

우리 시는 오는 6월 9일까지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찾아가는 원예체험’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인천 시민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식물 관리 교육 및 나만의 반려식물 만들기를 진행한다. 반려동물과 생활하듯 반려식물을 가까이 둬으로써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민들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거나 관련 홈페이지(agro.in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032-440-6945



시민의 친수공간, 하천·호수 수생태 조사

우리 시는 공공수역의 수질관리와 시민의 쾌적한 친수공간 이용을 위해 수생태계 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는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 남조류 등의 증가를 사전에 파악해 수질 관리 및 친수공간 조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대량 증식 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식물 플랑크톤을 지표로 정해 조사한다.

올해에도 관내 생태 하천인 굴포천 등 8개소와 고려저수지 등 호수 4개소를 대상으로 식물 플랑크톤 총생물량, 우점종, 계절별 점유율 및 출현 종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전년도 조사에서는 8개 하천 중 승기천의 총생물량이 1,600개체수/mL로 가장 양호한 상태로 조사됐다. 계절별 분포는 봄·겨울에는 규조강, 여름·가을에는 녹조강이 우점종으로 관찰됐고 출현 종수는 시네드라(Synedra sp.) 등 16종이었다.

4개 호수 중에는 길정 저수지의 총생물량이 3,200개체수/mL로 가장 낮았고 봄에서 가을까지 녹조강, 겨울에는 규조강이 주로 관찰됐으며 클로렐라(Chlorella sp.) 등 8종이 조사됐다.

시 환경생태과 032-440-5595

거미줄 ‘공중케이블’ 대대적 정비

우리 시는 원도심 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산·통신선(이하 공중케이블) 정비에 나선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201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되었으며 지난해까지 총 1,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만4,708본의 전주와 케이블 1,555km의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는 202억원의 사업비(과기정통부 159억원, 한전 43억원)를 확보해 18개 구역의 전주 1만1,678본 및 케이블 280km를 정비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진행된다.

시 도로과 032-440-3787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탄소중립’ 공동선언

우리 시는 지난 5월 24일 국내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다짐하는 선언식에 참여했다. 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선언은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실행을 담당하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의지를 모으고 지역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으로 포문을 연 이날 행사에는 한정에 환경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의장,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내외 주요 도시의 장이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참가했다.

앞서 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탈석탄 동맹 가입, 시·8개구 합동 탈석탄 금고 선언 등을 추진해 탈석탄 의지를 표명하며 기후행동에 동참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2030년,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6,600만 tCO2-eq)* 대비 30.1%, 80.1%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개 배출량

시 환경기후정책과 032-440-8593



국제회의복합지구 사업 공모 전국 1위

우리 시와 인천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서 1위를 차지해 국비 5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국제회의가 급증하는 흐름에 맞춰 지난해 가상 스튜디오, 3D 온라인 회의 플랫폼, 홀로그램 상영관을 구축하는 등 국제회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왔다.

2년 연속 같은 공모에서 1위를 기록한 시는 송도컨벤시아 일대 298만㎡에 지정된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국제회의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 마이스산업과 032-440-1505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어린이 안전 최우선

지난 5월 17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 업무의 정책 결정 역할 등을 할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수도권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

인천시 자치경찰위는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업 강화, 시민 소통·협력 증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활동 강화와 아동학대 문제 관리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치안행정 시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에 앞서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만들고, 위원장인 이병록 전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장 등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구성한 뒤 이날 임명장을 전달했다.

시 자치경찰운영과 032-458-7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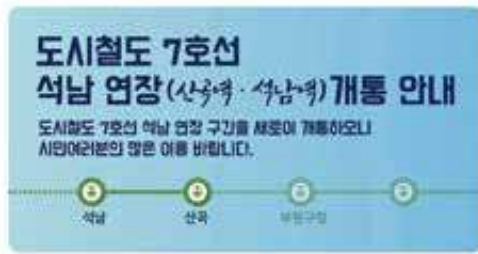
‘석남~부평구청’ 7호선 석남 연장선 개통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을 잇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이 철도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지난 5월 22일 개통했다. 7호선 석남 연장선은 기존 종착역인 부평구청역(인천 갈산동)에서부터 산곡역을 거쳐 석남역(인천 석남동)에 이르는 총연장 4.165km 노선이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남북으로 지나가는 인천 1호선(부평구청역)과 인천 2호선(석남역)이 H자 형태로 이어져, 인천 1·2호선 간 환승 체계가 구축됐다. 또 인천 2호선 환승객이 석남역을 통해 서울 강남 등지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석남 연장선은 기존 7호선과 동일한 8칸짜리 중량 전철로, 출·퇴근 시간대는 6분, 평시에는 12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032-451-2722



‘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XR 메타버스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XR 메타버스란 가상융합기술(XR)을 활용한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관광·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우리 시는 XR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총 130억원을 투자하며 이후 수행 결과에 따라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시는 네이버랩스, 에스피테크놀로지, 플레이스비 등 전문기술기업들과 3차원 공간 정보 구축과 콘텐츠, 디바이스 개발 관련 사업을 내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시 스마트도시담당관 032-440-8937

맑은 하천 ‘하천 줍깅 챌린지’ 캠페인

우리 시는 지난 5월 14일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과 함께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 정화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천 줍깅 챌린지’를 실시했다.

‘줍깅’은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으로 일명, 플로깅(plogging, 스웨덴어의 줍다(plocka up)와 영어 달리기(jogging)의 합성어)이다.

이번 챌린지는 인천 지역의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굴포천, 승기천, 장수천, 공촌천, 심곡천, 나진포천 모든 구간에서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1사1하천 가구기 참여기업, 민간단체, 자원봉사단 등 26개 기관 및 단체 260명이 참여해 ‘줍깅’과 하천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했다.

시 수질환경과 032-440-3623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지자체 선정

우리 시는 지난해 419억원의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둬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년도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의료급여 재정관리 인센티브 제도는 의료급여비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불필요한 의료급여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군·구가 합동으로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 TF’를 구성해 매월 주기적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실적에 대한 점검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당초 의료급여 예상액 5,908억원보다 419억원이 절감된 5,489억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절감 목표치보다도 100억원 이상 절감한 성과다.

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14

전국 최초 ‘스마트 전통시장 정밀지도’ 서비스 전면 시행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관내 전통시장 58개소에 대한 정밀지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네이버 및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 정보를 보다 쉽고 상세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을 찾아가기 위한 길 찾기, 점포 정보(점포명, 영업시간, 판매 품목 등), SNS 공유 등 실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4

인천시립박물관-서울 코엑스 아쿠아리움,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립박물관과 서울 코엑스 아쿠아리움이 해양 콘텐츠를 확대하고 양 기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 교류 업무협약(MOU)을 지난 5월 20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해양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문화행사 상호교류, 홍보 협력체계 구축, 자료·정보의 교환 등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유동현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해양 콘텐츠 기반을 확대해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콘텐츠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립박물관 032-440-6739

세어도 ‘갯벌 정원’으로 만든다

인천 도심 인근에 있는 작은 섬인 세어도 전체를 ‘갯벌 정원’처럼 만드는 종합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우리 시는 ‘어촌뉴딜 300 사업’에 특수 상황지역 개발 사업 등을 연계해 세어도의 어업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섬 자원을 활용한 각종 환경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주민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세어도 둘레길 등을 이용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구역상 서구 원창동에 속한 세어도는 인천 내륙에서 불과 1.5km가량 떨어진 섬이다. 전체 면적 40만8,000m², 24가구의 주민 40여 명이 주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세어도 곳곳에는 질경이와 마타리 등 20가지가 넘는 야생초가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갯벌, 갈대숲, 소나무 군락지 등 각종 생태자원도 보존돼 있다.

시 도서관과 032-440-4993



‘공공주도 3080+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로 미추홀구, 부평구 2개구 총 3개소가 선정됐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2월 4일 정부에서 발표했으며,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규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후보지별 입지 요건 및 사업 가능성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공공이 시행 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으로 공공주택특별법(국회 입법 진행 중)에 의해 추진되며, 기본적인 입지 요건(범위, 규모, 노후도)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 재생정책과 032-440-4469

우수식품기업 수출길 활짝 열어준다

우리 시는 관내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해외 진출과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를 돕는 ‘인천 우수식품 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온라인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개최, 2021년 킨텍스 메가쇼 식품박람회 ‘인천식품관’ 운영, 미국 오렌지카운티 ‘인천식품관 판촉전’ 등 다양한 식품제조 산업 유통 및 인프라 구축 등이다.

시는 올해 해외 판로개척 사업을 확대·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3,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 위생정책과 032-440-2797

2021 식품안전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우리 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식품안전관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5월 14일 제20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전국 1위의 영예를 안아 기관 표창과 포상금 600만원을 수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리 시는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기초 위생관리, 정부 주요 시책 분야 적극 추진 등 식품안전관리의 모든 지표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획득하며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위생정책과 032-440-2797

버려지는 플라스틱 장난감,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12일 한국환경공단 녹색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와 함께 완구류 자원순환 여건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완구류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교육 등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고, 완구류 별도 선별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가정 등 주요 배출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완구류 분리배출 홍보 및 회수·선별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버려지는 플라스틱류 장난감을 자원화하는 사업을 올 하반기까지 시범 추진한다.

시 자원순환과 032-440-3572

◦ COUNCIL NEWS ◦

자치입법 참여센터 개설

인천시의회의는 지난 5월 24일 시민주권을 강화하고 조례 발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회 누리집에 ‘자치입법 참여센터’를 개설했다.

센터는 시민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속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조례나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누리집(www.icouncil.go.kr)을 통해 자치법규나 제도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입법정책 담당관과 소관부서의 책임성 있는 법리 검토를 통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게 되며, 우수 제안자는 연말에 의장 표창을 수여한다.

GTX-D Y자 노선 반영 촉구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인천시의의회가 국가철도망계획에서 배제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D Y자 노선 추가 반영과 전 세계를 긴장하게 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5월 11일 GTX-D Y자 노선에 대한 타당성 기준 재검토,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GTX-D Y자 노선의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등을 요구했다. 또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와 검증 실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원산지 단속 등을 주장했다.



‘청렴 의회 만들겠습니다’ 다짐

인천시의의회는 지난 5월 11일 본회의장에서 반부패 인식제고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2021년도 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높이고자 마련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공동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조애란 강사의 청렴 판소리 ‘춘향가’ 공연 관람, 청렴 컨설팅 교육 전문가인 이선중(국민권익위 청렴 컨설팅 자문위원) 강사의 ‘청렴 컨설팅 및 이해충돌 방지’ 특강을 수강했다.

이날 교육이 끝난 후 시의원 37명은 청렴 서약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디지털로 혁신하고 소통한다

인천시의의회는 지난 5월 1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실무관계자(TF)가 참석한 가운데 ‘의정한울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정한울네트워크’는 자치분권시대에 시의회가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의정정보화 사업의 총칭으로, 시의회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와 한 자락의 실처럼 매우 가깝고 친밀하게 소통하고 공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25일부터 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디지털 혁신으로 변화하고 소통하는 의회 구현’ 정보화 비전, 정보화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

정보의 집중화로 의정정보 공유체계 마련, 시스템 개선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대응 등의 정보화 전략을 수립했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역할’ 토론회

인천시의의회가 인천 시민들의 대중적 여론 형성과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방송의 역할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의회는 지난 5월 25일 오전 10시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OBS의 변화와 인천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의 언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KBS 총국과 지역 MBC가 없는 인천이 언론 기능의 약화를 극복하고, 지역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의견이 오고갔다.

행정안전위, 인천형 자치경찰제 정착 토론회



인천시의의회가 인천자치경찰이 인천 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방안과 방향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행안위 회의실에서 손민호 위원장의 사회로 ‘인천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은 관할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 아동, 노약자, 지역행사, 경기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행준 대한지방자치학회 자치경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인천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략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와 남궁형 인천시의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장재만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한필운 민변 인천지부 사무처장, 고창식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운영과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문화복지위, 사회복지현장 애로사항 청취

인천시의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계양구에 있는 노틀담복지관을 방문해 기관 운영현황 청취와 함께 노인·장애인·아동·노숙인·다문화 등 분야별 사회복지기관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을 찾아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복지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추진됐다.

교육위, 강화지역 폐교 부지 현장 방문

인천시의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5월 14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천시 강화지역 폐교를 찾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화지역 폐교 관리 실태를 점검해 효율적인 폐교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계획됐다.

우선 이날 교육위원들은 강화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강화지역 폐교 운영 현황과 인천평화학교 추진 상황 등의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효율적인 폐교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난 3월 선택분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폐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앓의회> 구독 안내

인천의회저널이 시민이 뽑아준 새 이름 <인천앓의회>로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더욱 자세한 의정활동 소식은 <인천앓의회>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한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앓의회>는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35

웹진으로 보기 www.icouncil.go.kr/journal



인천의 자연,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환경특별시’ 인천은 168개 섬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습니다.
삶에 싹포를 찍는 여유와 다채로운 매력이 살아 숨 쉬는 인천의 자연.
인천 작가의 스케치에 시민 여러분의 색과 빛을 입혀주세요.

이달의 드로잉

여름의 문턱에서 바라본 무의도



양수현 작가



캐릭터와 일러스트로 출발, 2010년 첫 번째 개인전 ‘꿈꾸는 달동네’ 이후 친근하면서도 서정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인천여성회의 ‘안전한 골목길’ 미술 감독, 인천문화재단의 ‘우리 동네 목공방’ 기획, 도화초등학교 ‘골목 갤러리’ 초대 벽화 작가 등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 가까운 곳에서 함께 호흡하며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양수현 작가의 채색 가이드

▷ 5월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신희수 연수구 해송로



김한성 계양구 살라리로



유정 부평구 원길로



이재원 서구 중봉대로



김성범 미추홀구 경원대로

▷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①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② 이메일 : goodmorningic@naver.com

기간 : 2021년 6월 21일까지 문의 :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무의도에 다리가 놓인 지도 2년이 흘렀다. 배로 10여 분. 금세 도착하는 짧은 거리였지만 차로 다리를 건너는 지금과는 또 다른 매력이 흘렀다. 아쉬워할 새도 없이 섬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 하나개해수욕장에서 레포츠를 즐기고, 해상관광탐방로를 걸으며 천혜의 자연을 만끽한다. 높이 244m의 호룡곡산에 오르면 그림 같은 풍광이 눈앞에 펼쳐진다. 장관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다듬어지지 않은 등산길을 올라야 하지만, 그 투박함마저 무의도가 가진 매력이 아닐까. 여름의 문턱 6월. 배가 아닌 차를 타고 무의도의 매력을 찾아 떠나보는 것도 좋을 일이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 INFO BOX ◦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01 인천시 독립 40년 축하 공모전 개최

우리 시가 직할시 승격 40년을 기념해 ‘2021 인천시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 : 인천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자유 주제
-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며, 보석 같은 168개의 섬을 가진 인천의 매력
- 인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인천광역시의 정책 홍보
- 나만 알고 있는 특별한 인천의 숨은 매력
- 따뜻하고 행복한 인천 시민의 소소한 이야기
- 인천의 명소들을 활용한 뮤직비디오 영상 등 인천광역시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자유 주제
응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접수 기간 : 6월 23일
접수 방법 : ㉢ incheonfilm2021@gmail.com
작품 규격
- 분량 : 3분 이내 영상물
- 규격 및 형식 : FHD(1920x1080) 이상, MP4 형식
참조 : ㉡ www.incheon.go.kr
문의 : 시 소통기획담당관 ㉠ 032-440-3033

02 자연재해로부터 든든히 지켜드립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 확대되어 2021년부터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과 집기 비품, 기계, 재고 자산,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농·임업용 온실
대상 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보험 기간 : 1년
지원 규모 : 70~92%(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문의 : 시 자연재난과 ㉠ 032-440-3359

03 안심in, 시민의 안전 귀가를 책임집니다

우리 시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축한 공공 앱인 ‘안심in’을 시행합니다.

안심in : 긴급도움 요청 서비스 이용 시, 인천 10개 군·구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전송되고 신속하게 경찰과 연계되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앱
사용 대상 : 인천 시민 누구나
주요 기능 : 긴급도움 요청하기, 지인에게 알리기, 나에게 전화 걸기, 내 친구 위치 보기, 활동반경 이탈방지 서비스, 휴대폰 움직임 확인 서비스, 목격신고 서비스, 미세먼지 정보 서비스
이용 방법 : 스마트폰 앱 설치 후 이용 가능

04 숨은 인재를 기다립니다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1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상 : 청년, 신중년, 경력 단절 여성(20명 이내 선착순)
교육 일시 : 6월 15일~8월 10일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6시(총 64시간)
장소 : 인천 YWCA 7층 강당
※ 행정안전부 협업 체계 구축 사업으로 교육 수강 80% 이수 시 수료 인정되며, 구직 연계 가능
문의 : 미추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32-883-7888

05 인천 바다, 해양의 미래를 선도하다

우리 시가 국내외 해양 산업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들과 미래 해양 산업 전망을 공유하고자 수도권 유일의 해양 분야 비즈니스 특화 포럼인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을 개최합니다.

행사명 :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2021)
기간 : 6월 30일~7월 1일
방법 :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진행
장소 : 송도컨벤시아 및 ㉡ www.iiof.kr/2021
주요 내용 : AI/스마트 항만, 글로벌 이슈, 항만 네트워크, 해양 환경, 해양 관광
주제 : 세상이 묻고, 바다가 답하다
문의 : 인천국제해양포럼 사무국 ㉠ 02-2152-5085

06 노인 일자리 정보가 한눈에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 일자리를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인천 노인 일자리 정보 시스템(QR코드)’을 운영합니다.

①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
② 인천 노인 일자리 정보 시스템 접속
③ 수행기관별 노인 일자리 확인
문의 :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 032-886-1855



07 폭력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사)해피패밀리 인천남지부 폭력예방교육전문기관 하모니에서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기간 : 11월까지
교육 대상 : 폭력예방교육 비의무 대상인 일반 성인 10명 이상
교육 목표 : 폭력예방교육 330회(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통합 교육)
교육 시간 : 1시간 또는 2시간
교육 방법 : 대면 또는 비대면(실시간 온라인 교육, 기관 내 방송 송출 등)
교육비 : 무료
신청 방법 : 전화 및 ㉡ harmonyincheon.modoo.at(교육 희망일 15일 전)
문의 : (사)해피패밀리 인천남지부 폭력예방교육전문기관 하모니 ㉠ 032-861-2706

08 배움의 광장으로 오세요

인천여성의광장에서 제3기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기간
- 6월 14일 오전 9시부터(IT, 어학 분야), 6월 15일 오전 9시부터(전문 인력, 문화 건강, 토요, 단기 강좌)
교육 기간 : 7월 5일~9월 29일
교육 대상 : 인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수강료 : 6만원(월 2만원)
신청 방법 : ㉡ www.incheon.go.kr/wp
문의 : 인천여성의광장 ㉠ 032-815-7101~3

09 아이 돌봄, 함께 고민해요

미추홀문화원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마을 : 지역사회 돌봄과 협치’를 주제로 미추홀학산문화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시 : 6월 21일(월) 오후 2시
내용 :
- 발표 1 : 지자체 돌봄·사회복지법인 ‘풍성하게’
- 발표 2 : 사회적 돌봄·마을교육공동체 ‘예그리나’, 사회적기업 ‘청청프로젝트연구소’, ‘은하수미술관’
- 발표 3 : 다문화 돌봄·미추홀구가족센터
- 종합 토론 : 전문가 패널 및 발표자 토론
장소 : 학산소극장(미추홀학산문화원 유튜브 생중계)
문의 : 미추홀학산문화원 ㉠ 032-866-3993

10 인천시립박물관, 더 재밌게 즐기기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인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찰나의 인천]

사진기자 박근원의 기증 사진으로 바라보는
1970~1980년대 인천
기간 : 6월 20일까지
장소 : 기획전시실
문의 : 인천시립박물관 ☎ 032-440-6749

[파주임풍, 간판의 비밀]

박물관에 기증된 ‘파주임풍’이라 쓰인 간판의 실체를 추적
기간 : 7월 4일까지
장소 : 갤러리 한나루
문의 : 인천시립박물관 ☎ 032-440-6749

[졸업 앨범 속 인천 풍경]

주제 : 개교 60년 이상 된 학교의 졸업 앨범에 담긴 인천의
공간과 사람
기간 : 6월 27일까지
장소 : 인천시청역 지하 3층 개찰구 옆
문의 : 인천시립박물관 ☎ 032-440-6735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내용 : 개항장 답사와 레고 만들기를 통한 근대건축물 체험
일시 : 6월 12일 오후 2시~5시
장소 : 중구 개항장 일원
대상 : 6~12세 어린이 동반 가족 10팀
문의 : 인천시립박물관 ☎ 032-440-6732

11 연수문화원, 여름맞이 문화 프로그램

연수문화원에서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성인을 위한 전통문화예절 프로그램]

교육 장소 : 연수문화원(청학문화센터 2층)
모집 인원 : 강좌별 10명(연수구 주민 우선)
접수 일정 : 6월 8일부터
교육 내용 : 부모예절교육, 생활예절교육, 전통문화체험(강좌별
교육 일자 상이)
접수 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
수강료 : 무료(연수문화원 평생회원 가입 필수)
문의 : 연수문화원 ☎ 032-821-6229

[제76기 여름학기 문화학교]

교육 장소 : 연수문화원(청학문화센터 2층)
교육 기간 : 6월~8월(강좌별 상이)
접수 방법 : ☎ www.yeonsu.go.kr/culture 및 방문 접수
문의 : 연수문화원 ☎ 032-821-6229,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 032-431-2122



새 책 소개

전시와 도시 사이
다이얼로그

저자 유영이
펴낸 곳 효형출판
245쪽
14,000원



<전시와 도시 사이, 다이얼로그>는 전시가 갖고 있는 ‘힘’과 전시를 진정으로 ‘향유하는 방법’, 그리고 ‘전시란 무엇인지’에 대해 목직한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전시장의 시시콜콜한 실용을 담고 있지 않다. 세세한 작품 세계를 설명해 주는 책은 더더욱 아니다. 한마디로 ‘전시란 무엇인가’라는 화두에 파고들어 무겁지 않게, 고리타분하지 않게 써 내려간 전시 공간에 관한 에세이다. 이 책을 덮고 나면 분명 가까운 곳곳에서 펼쳐지는 전시와 전시를 품은 도시 공간이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보고 보이는 대화, 전시는 언제든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귀를 기울였다면, 이제 우리가 전시에게 말을 걸어볼 수 있다. 저자 유영이는 땅과 바다가 만나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 도시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다. 공간을 주제로 대화하는 법, 대화하는 공간을 만드는 기획을 위해 실무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문화, 도시, 건축, 일상, 언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계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

부평에서 구로까지 다스린
옛 영화의 흔적 남아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남동구 ‘간석오거리’를 경계로 택시요금이 달랐던 때가 있었다. 인천에서 부평 방면으로 넘어갈 경우 2,000원 정도 가산금이 붙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외지 사람들은 “같은 인천인데 왜 요금 이 다르냐”며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평과 인천은 다른 지역이었다. 지리적으로도 한남정맥(안성 칠장산에서 시작해 김포 문수산을 잇는 산줄기)이란 산줄기를 경계로 나뉘어 있었다. 산줄기 남쪽은 인천도호부관아(인천시 유형문화재 제1호)가, 북동쪽으로는 부평도호부관아가 각각 들어섰다. 조선 시대 인천도호부관아는 문학산 아래 일대와 제물포 지역을 관할한 반면, 부평도호부관아는 15개면에 이르는 광활한 행정구역을 다스렸다. 지금의 부평·계양·서구는 물론이고 부천, 서울 구로구의 온수·오류동 일대, 강서구 개화동과 김포공항 일대, 광명시 천왕역 주변까지가 부평도호부 관할 지역이었다. 청사의 규모도 상당했다. 축구장 4배 크기의 땅에 27개 동 232칸의 건물들이 있었다고 <부평부읍지>는 전한다.

부평도호부관아를 지은 시기는 고려 성종 14년(995)이다. 이후 900년 동안 부평 일대를 통치했으나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건물이 헐리고 만다. 관아가 헐린 자리에 부평초등학교 전신인 부평공립보통학교 건물이 들어선다. 불행 중 다행으로 1개 동이 남아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채 보존되고 있다. 이 건물은 수령이 정무를 집행하던 ‘동헌’이나 기거하던 ‘내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 여섯 칸, 측면 두 칸 크기의 ‘—자형’ 건물로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부평도호부관아 건물 앞엔 정조대왕이 계양 지역을 찾았을 때 활을 쏘았다는 ‘어사대’와 손을 씻었다는 ‘욕은지’가 있다. 사도 세자의 아들로 효심이 깊었던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아버지 무덤인 수원의 ‘현릉원’에 능행을 다녀오곤 했다.

역적(사도 세자)의 아들이 국왕으로 즉위했다는 사실은 조선 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정조는 이에 사도 세자의 호칭을 장헌 세자로 바꾸고 양주 배봉산에 있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긴다. 정조는 24년 재위 기간 66차례나 궁궐 밖 행차를 했는데 이 가운데 13번이 수원을 방문한 것이었다. 1797년 8월 15일~19일 수원 용릉 참배 일정에 나선 정조는 16일 오전 부평 행궁에 도착해 어사대에 머물며 활을 쏘고 자신을 반겨주는 백성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부평민의 환대를 받은 정조는 계양을 칭송하는 ‘어제시’를 지어 하사하고 욕은지에서 손을 씻은 뒤 수원 화성으로 향한다.

부평도호부관아 한편엔 600여 년 된 은행나무가 서 있다. 높이 25m의 이 은행나무는 조선 태종 18년(1418) 부평도호부관아를 새롭게 완공하면서 관청 건물 주변을 꾸미기 위한 풍지목으로 심은 것으로 추정된다. 관아 옆 도호부사를 지낸 18명의 수령과 경기도 관찰사 3인의 선정비도 만난다.

인천 지명

호랑이의 입을 닮은 ‘호구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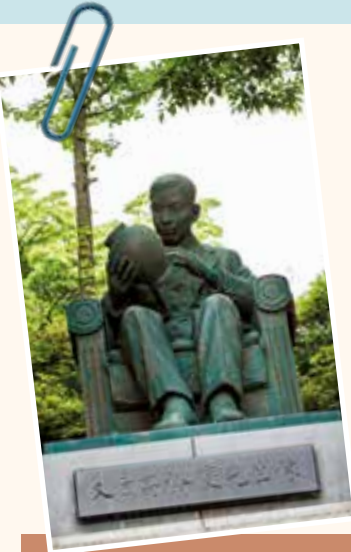
남동구 논현동 서남쪽에 있는 호구포虎口浦는 이름 그대로 ‘호랑이의 입처럼 생긴 포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지만 ‘범 아가리’가 바로 호구포의 순우리말이다. 예전에 호구포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포구였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이곳은 멀리 떨어진 소래 오봉산 기슭에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는 모양의 검고 큰 바위가 있어 호구암이라 불렀고, 이 때문에 호구포라는 이름도 생겼다고 한다. 호구암은 바다 건너 대부도를 향해 있어 대부도에서는 개를 키우면 바로 죽어버렸다는데, 실제 그 지형으로 보아서는 타당성이 없고 그저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다.

엇비슷한 다른 전설도 있다. 호구암 맞은편 경기도 안산의 산기슭에 옛날 어떤 세도가들 집안의 산소가 여럿 있었는데, 그들 집안의 자손들은 제대로 대를 잇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답답해 하기로 했는데, 한 풍수쟁이가 산소 건너편 호구암이 입을 크게 벌리고 산소를 삼키려는



모양이라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그 집안사람들이 호구암의 입부분을 도끼로 찍어 없앴더니 그 뒤로 자손이 번성했다는 이야기가인데, 지금은 호구암이라는 바위가 진짜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이는 모두 전설일 뿐일 테고, 실제로는 이곳의 지형이 바다 쪽에서 안으로 파고 들어와 호랑이의 입처럼 생긴 데에서 동네 이름이 유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이 매립되기 전인 1918년 일제가 발행한 지도를 보면 호구포 일대의 모양이 실제 호랑이의 입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1920년대에 버려진 개펄을 이용해 남동염전이 만들어지면서 호구포는 원래의 모양을 잃어버렸고, 그나마 지금은 남동공단 이 들어서 더욱 모양이 바뀌고 말았다.



1944.06.26
우현 고유섭 선생 별세

1944년 6월 26일, 대한민국 미술사의 큰 별이 졌다. 우현 고유섭은 우리 미술을 처음으로 학문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미술학자다. 그는 1905년 중구 용동에서 태어났다. 국내 최초로 대학에서 미학·미술사를 전공했으며, 체계적인 연구로 우리 미술사와 미학을 근대적인 방법론으로 학문화한 선구적인 학자였다. 1930년 이후 중요한 고대 미술품들을 조사·연구하는 데 힘썼으며, 1933년 개성부립박물관 관장으로 부임해 10여 년간 우리 미술사 여러 분야 연구에 주력했다. 그의 목표는 근대적인 미술사 방법론에 의거한 <조선미술사> 집필이었으며, 이를 위해 건축·회화·조각·공예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글을 남겼다.

그때, 6월의 인천은...

- | | |
|--------------|----------------------|
| 1911. 06. 01 | 인천 축항 기공 |
| 1920. 06. 01 | 인천한용단(仁川漢勇團) 창단 |
| 1953. 06. 09 | 충훈탑 제막 |
| 1974. 06. 26 | 우현 고유섭 기념비 제막 |
| 1978. 06. 01 | 중화루(전 대불호텔) 철거 |
| 1993. 06. 02 | 새얼문화재단, 제1회 국악의 밤 개최 |
| 2005. 06. 16 | 인천대교 착공 |
| 2008. 06. 13 | 한국이민사박물관 개관 |

우연히 찾아온
행복

사연 고순영(연수구 송도동)



지난해 겨울, 이사를 왔습니다. 신혼 때부터 16년을 함께한 집, 가족 같았던 지인들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는 이 하나 없는 이곳에서 물 위의 기름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방에 있는 남편과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몇 달째 온라인 수업하는 아이들과 부대끼며 지쳐가는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집 앞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예상 밖의 차분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꽃내음 가득한 봄과 시원한 바람 머금은 여름, 서늘한 듯 따스한 햇살 주는 가을, 뒤죽박죽 엉킨 마음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겨울... 저마다의 자리를 지키며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많은 위로를 주는 자연이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터인데, 혼자만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몰랐던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어제를 반성하며, 다시 한번 시작하려 합니다.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仁生 사진관’은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인천을 무료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보내주신 사진을 실어드리거나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조미전쟁 150주년, 수자기 펄력이다



조미전쟁이 벌어졌던 광성보. 가운데 帥자가 써 있는 깃발이 수자기다. 사진은 2010년 10월 재현한 광성보 전투 장면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강화도 ‘광성보’에 가면 장엄한 기운이 전신을 휘감는다. 어재연(1823~1871) 장군의 품모가 느껴지는 정문 안해루,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군인들의 무덤인 신미순 의총, 치열한 백병전이 펼쳐졌던 손돌목돈대. 그곳에 서서 바다를 보노라면 150년 전 ‘조미전쟁’(신미양요)의 처절한 전투 장면이 엿하처럼 빠르게 흘러간다. 1871년 6월 11일 미군 함대는 광성보를 향해 무차별 함포 사격을 가한다. 광성보엔 당시 진무중군 어재연 장군과 수비병 600여 명이 배수진을 치고 있었다. 제대로 된 현대식 총 한 자루 없는 상황에서 어재연 장군은 동생 어재순, 조선군과 함께 목숨을 내놓고 전투에 임한다. 결과는 참혹했다. 미국이 전사자 3명, 부상자가 10명인 반면 조선군 전사자는 350명, 부상자는 20명에 달했다. 광성보를 점거한 미군은 이때 조선군이 하늘 높이 들고 싸우던 어재연 장군기인 수자기(帥字旗)를 강탈한다. 조미전쟁은 미국이 조선을 개항시킬 목적으로 침략했으나, 조선군의 격렬한 저항에 밀려난 사건이다. 조선으로선 ‘졌지만 승리한 전쟁’으로 평가된다. 당시 미국은 일본 등을 상대로 ‘포함외교’를 벌여 성공했지만 유일하게 조선에서만 실패하고 철수해야 했던 것이다. 참전자 슬라이(Schley) 해군 소령은 ‘조선군은 결사적으로 장렬하게 싸우면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들의 진지를 사수하다 죽었다. 가족과 국가를 위해 이보다 더 장렬하게 싸운 국민을 다시 찾아볼 수 없다’는 기록을 남겼다. 당시 조선군을 높이 평가한 미군은 어재연 장군을 비롯한 장

교들을 정중히 매장해 주었다고 전한다. 미국이 다시 조선 땅을 밟은 때는 1882년이다. 이번엔 함포 대신 성조기를 들고 인천 땅을 밟았다. 그 해 5월 22일 조선 전권대신 신헌과 미국 전권공사 슈펠트(Shufeldt) 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됐다. 서구 열강과 최초로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치외법권과 최혜국대우를 인정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협상 장소는 자유공원 초입 언덕이었고 이때 우리나라 태극기가 처음으로 만들어져 사용되기도 했다. 미국이 탈취한 이래 아나폴리스(Annapolis)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던 수자기가 고국으로 귀환한 때는 2007년이다. 문화재청은 이때 미국으로부터 장기 임대하는 형식으로 수자기를 가져왔는데 2022년 10월이면 임대 기간이 끝난다. 가로 4.13m, 세로 4.30m 크기의 삼베로 제작한 수자기는 현재 강화역사박물관이 보관 중이며 강화전쟁박물관에선 복제품을 전시 중이다. 미국이 약탈해 간 문화재인 수자기는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 용맹하게 싸워 마침내 적을 쫓아낸 불굴의 상징이자,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다. 조불전쟁(병인양요, 1866)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갔다가 반환한 외규장각 의궤와 마찬가지로 수자기도 어떤 형식으로든 돌려받는 것이 옳다. 호국의 달인 6월. 손돌목에 서서 불어오는 엿하의 바람을 맞는다. 지그시 눈을 감자, 푸른 하늘드높이 수자기가 펄력인다.



지금으로부터 꼭 150년 전,
광성보의 카키색 바다는 핏빛으로 조용돌이쳤습니다.

1871년 6월 11일 최신예 함포를 앞세운 미국 함대는
광성보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어재연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은 변변한 현대식 총 한 자루 없었지만
격렬하게 맞서 싸웠고 수백 명이 장렬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강제 개항에 실패하고 돌아가던 미군이
용맹함을 높이 평가할 정도로 조선군의 전투력은 필사적인 것이었습니다.

한 세기 하고도 반이 흘러 광성보는 지금,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유적 공원으로 피어났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장렬하게 싸우다 스러져간 조선군의 넋일까요?
광성보에 피어난 무수한 들꽃들이 바닷바람을 타고 하늘거립니다.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